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제주도의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정책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經 濟 學 科

황 정 빈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博士學位論文

**Effect Analysis of Tourism Demand on Jeju-  
island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and induction of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經 濟 學 科

황 정 빈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博士學位論文

**Effect Analysis of Tourism Demand on Jeju-  
island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and induction of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指導 閔 忠 基 教授

이 論文을 博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經 濟 學 科

황 정 빈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 論文을 황정빈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 年 月 日

審査委員 \_\_\_\_\_ 민충기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II 장	제주도 관광 및 세계유산 등재 현황	5
제 1 절	제주도 관광현황	5
제 2 절	세계유산 등재 과정 및 현황	15
제 3 절	제주도 투자이민제도	24
제 III 장	기존 문헌연구	31
제 1 절	관광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31
제 2 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43
제 IV 장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정책 도입 효과	47
제 1 절	자료 및 기초통계	47
제 2 절	모형과 분석방법	55
제 3 절	분석결과	63
제 V 장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3



## 표 목 차

<표 1>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현황 .....	7
<표 2> 기간별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	13
<표 3> 우리나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	19
<표 4> 세계유산 심의 권고안 및 조치사항 .....	20
<표 5>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외국인 체류 자격 .....	25
<표 6>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	25
<표 7>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 및 현황 .....	27
<표 8>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 및 현황 .....	29
<표 9> 변수별 요약통계량 .....	49
<표 10>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 .....	64
<표 11>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 제주 총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 .....	66
<표 12>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 제주 총 관광수입 중 외화 관광수입 비중 .....	67
<표 13> 제주도 GRDP 기여효과 추정결과 : 제주 GRDP .....	69
<표 14> 제주도 GRDP 기여효과 추정결과 : 한국 GDP 중 제주 GRDP 비중 .....	69
<표 15>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효과 추정결과 .....	71
<표 16>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누적효과에 관한 유의성 검정 .....	72



## 그림 목 차

[그림 1]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추이 .....	9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비중 .....	10
[그림 3] 제주도 관광객 추이 .....	11
[그림 4]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추이 .....	12
[그림 5] 권역별 제주도 관광객 비율 추이 .....	14
[그림 6] 부동산투자 체류비자 발급 추이 .....	28
[그림 7] 주요국가별 한국 방문 관광객 추이 .....	50
[그림 8]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 .....	52
[그림 9]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중국인 해외 관광객 증가율 .....	52
[그림 10] 제주 GRDP 및 관광수입 추이 .....	53
[그림 11] 제주 GRDP 중 관광수입의 비중 .....	5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제 I 장 서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총 관광객 수는 1994년 369만명에서 2014년 1,227만명으로 연평균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0년대에는 연평균 4.3%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9.9% 2010-2014년 기간에는 무려 36.4%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주도 관광 활성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 수요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6.2%에서 2014년 23.4%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4년 제주방문객실태조사의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중 제주도만을 여행하는 방문객은 12.9%에 불과해 제주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은 단순히 제주도 관광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관광산업의 측면에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관광객 증가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2007년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2010년 2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성과가 제주도 관광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의 폭발적인 관광수요 확대 등 다른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4년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 중 중화권 관광객 비중은 무려 87.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관광수요에 대한 영향은 연구자에 따라 일시적 효과에만 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제주방문객실태조사에서 제주도 여행시 주로 고려한 요인으로 무려 63%가 자연경관감상을 주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주요방문지는 40%가 자연관광지로 응답하였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는 일출봉, 한라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관광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주요 관광지가 자연유산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이 제주 관광수요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다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최근 관광수요 증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노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제주도 관광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관광수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활발하지 않았으나 이후 연구자들의 관심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70개 이상의 저널들이 관광산업을 주제로 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따라서 관광수요 모형 분석이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관광수요에 대한 실증연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과 같은



특정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관심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관광은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매 시점 발생하는 특정한 외부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time-specific effect)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정 및 실증 분석 과정에서 시점고유효과의 조정을 통해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통계 자료상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우리나라 지역별 관광통계는 사실상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로 집계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외지인의 입도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관광객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선정 등과 같이 특정 요인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광수요에 관한 기존 해외 실증연구에서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제주도의 최근 관광객 추이 등 관광 현황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과정 및 현황,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도입 및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관광수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존문헌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효과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살펴보고 본연구의 분석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 II 장 제주도 관광 및 세계유산 등재 현황

### 제 1 절 제주도 관광현황

#### 1. 제주도 관광개발 추진과정 및 개발 현황<sup>1)</sup>

우선 제주도의 관광개발 추진과정과 개발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1963년 제주도 자유지역설정구상, 1964년 제주도 건설종합개발 계획, 1966년 주도 특정지역지정 등을 거쳐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 권역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조적 성격의 중장기 개발 계획(1973-1981년)인 제주도 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이하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1973년 수립하였다.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제주도 관광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발 계획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거점식 개발방식의 적용을 통한 과급효과 제고, 관광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국제수준 관광지 조성, 관광주도형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핵심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1985년에는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년)을 확정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당시 건설부 주도하에 7년간 총 6,357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주도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국제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개발을 통한지역사회 개발을 골자로 하였다.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중문, 표선, 성산포 등 3개 관광단지의 중점개발 및 13개 관광지구개발 및 도로, 항만 등 지역개

1) 제주특별자치도(2014), pp.98-100을 참조.



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85년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년)을 수립하여 3개 관광단지와 27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총6,367억원의 사업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관광개발을 통한지역 경제 기반의 강화 등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후 1994년에 수립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기존 3개 관광단지 및 27개 관광지구를 3개단지 및 10개 관광지로 재조정하였다. 1997년에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서부 지역에 10개 관광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크게 3단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정책형성 과정, 2단계는 전략개발, 3단계는 법률 및 제도적 문제를 고려한 투자홍보 및 유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3년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23개 관광단지와 관광지구에 대한 보완·정비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한편 기존의 관광지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개별 허가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유권 제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과 개발방식의 일원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3개 관광단지 20대 관광지 지정을 해제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2001년 12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거하여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년)이 수립됨에 따라 본격화 되었다. 동 계획의 기본방향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 첨단 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기능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2011년 12월 수립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對중국 공략을 기조로 하였으며, 국제적 경제가치의 극대화, 관광·휴양경쟁강화,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등 1+3 전략과 제주도의 성장기반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12대 전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제주도 관광지 개발은 2014년 5월 기준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이 총 3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조 1,115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 중 일부 준공중인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8조 217억 원을 투자하였거나 투자예정이다. 권역별로 제주시권은 10개 사업<sup>2)</sup>, 서귀포시권은 13개 사업<sup>3)</sup>이 준공중에 있다.

<표 1>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현황

(14.5.30.기준, 단위:개소, 억원)

구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현황			절차진행
		계	일부준공 (운영중)	공사중	
사업체	계	38	23	15	5
	제주시	17	10	7	4
	서귀포시	21	13	8	1
투자규모 (실투자)	계	181,115 (54,409)	80,217 (43,862)	100,898 (10,547)	25,057
	제주시	41,424 (16,512)	28,125 (13,417)	13,299 (3,095)	17,568
	서귀포시	139,691 (37,897)	52,092 (30,445)	87,599 (7,452)	7,48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에서 재인용

현재 2014년 말 기준 공사중인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10조 90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제주시권에서는 7개 사업<sup>4)</sup>, 서귀포시권에는 8개 사업<sup>5)</sup>이 공사중에 있다. 개발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향후 약 2조 5,057

- 2) 봉개휴양림, 함덕관광지, 묘산봉, 라 온더마파크,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에코랜드, 아텐힐리조트, 세프라인 체험랜드, 라온프라이빗타운, 산천단 등이 포함된다.
- 3) 중문관광단지, 표선민속관광지, 성산포해양, 남원1·2차 관광지, 토산, 미친굴, 수망, 한 라힐링파크, 롯데리조트, 성산포 해양, 우리들메디컬, 테디벨리 등이 있다.
- 4) 풍산드림랜드, 여성테마파크, 그린벨리관광타운, 이호, 수촌, 오라관광지, 제주동물파크 등이 있다.
- 5) 신화역사공원, 백통신원리조트, 핀크스오도피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웰스케어타운, 삼매봉,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팜파스종합휴양단지 등이 있다.



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제주시권에 해당하는 사업은 4개 사업<sup>6)</sup>이며, 서귀포 권에서는 라온프라이빗 개발 사업 1건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지 개발 사업 중 외자투자사업은 9개 사업으로 6,942천m<sup>2</sup> 규모의 관광지 개발에 총 7조 8,275억원 가량이 투자되고 있다. 이 중 중국계 투자 유치 사업은 6개 사업<sup>7)</sup>으로 3,469천m<sup>2</sup>규모로 2조 6,938억원이 투자된다. 그 외 기타 외자유치 사업은 3개 사업<sup>8)</sup>으로 3,473천m<sup>2</sup> 규모에 5조 1,337억원이 투자된다.

---

6) 차이나비온드힐,상가관광지, 열해당리조트,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7) 오삼코리아, 백통신원, 이호유원지, 무수천, 헬스케어, 테디벨리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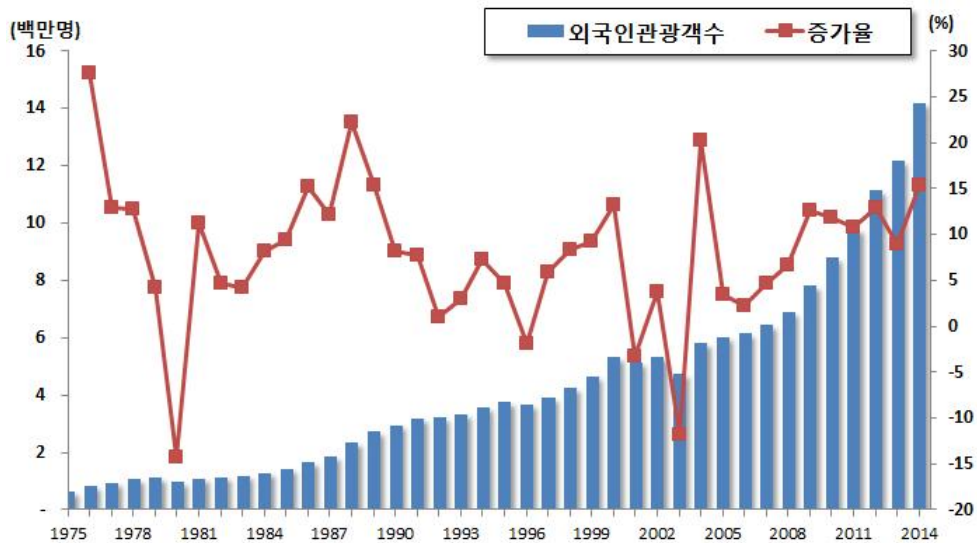
8) 휴양형주거단지(말레이시아), 플로승마장(싱가포르), 신화역사(홍콩) 등이 포함된다.



## 2. 제주도 관광객 추이

제주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4년에는 1,420만명에 달한다<sup>9)</sup>. 이는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율로 특히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최근 2000년대 후반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1979년, 1996년, 2001년, 2003년 등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는 등 특정 시점의 변동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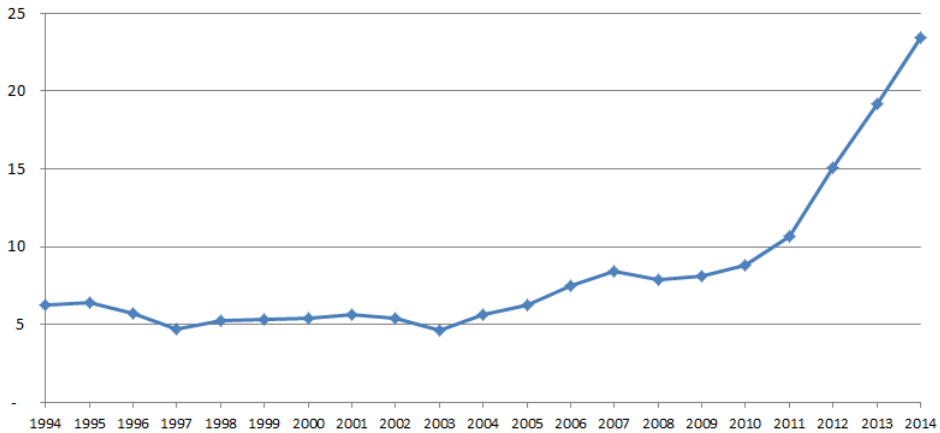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9)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를 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 대비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주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4년 2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2%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332만명으로 크게 늘어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sup>10)</sup>.

[그림 2]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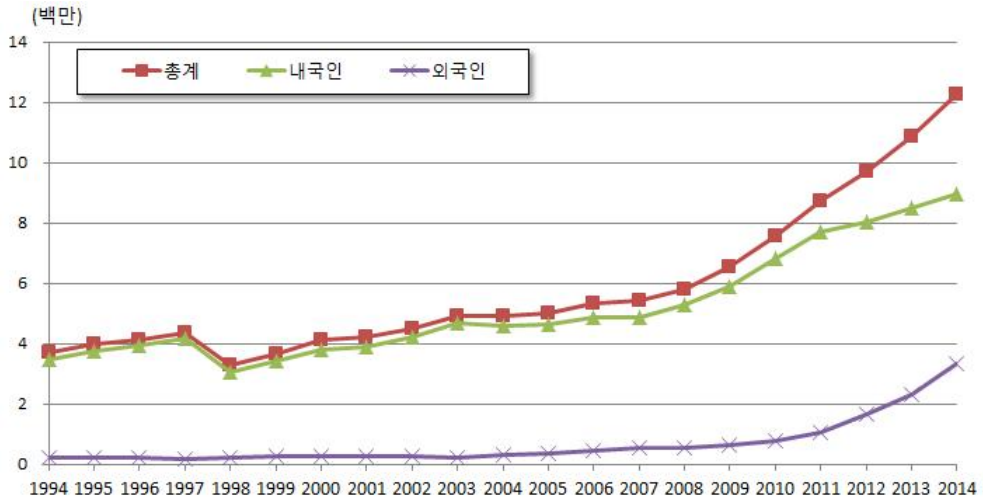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와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자료를 가공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한 제주도를 찾는 전체 관광객 수는 관련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1994년 369만명에서 최근 2014년에는 무려 1,227만명으로 20년간 연평균 6%의 꾸준한 증가를 달성했다. 해당기간 연도별 관광객 수 추이를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몇 년간 관광객 수가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와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자료를 참조.



[그림 3] 제주도 관광객 추이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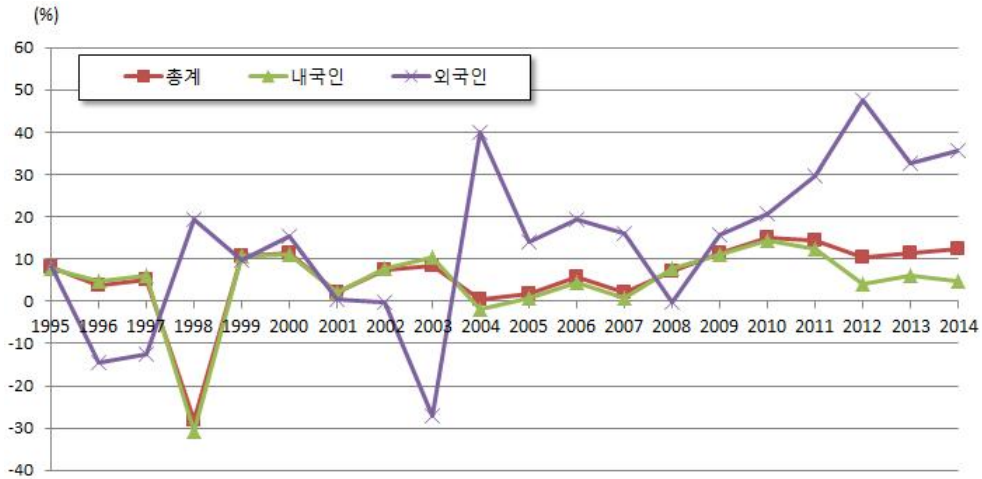
특히 이와 같은 꾸준한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2000년대 한류 열풍과 중국 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인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매해 20%를 훌쩍 뛰어넘는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994년 제주도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6.0%에 불과했으나, 2014년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무려 27.1%에 달하고 있다<sup>11)</sup>.

11)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를 참조.





[그림 4]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추이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최근의 급격한 관광객 수 증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4-2014년 전기간의 연평균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은 6.0%이나 2010년대는 이에 2배인 12.1%를 기록하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2010년대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36.4%에 달한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 점차 관광객 수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간별 제주도 관광객 증가율

구분	제주도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관광객총계	내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전기간 (1994~2014)	6.0	4.7	13.5
1990년대 (1994~2000)	1.8	1.6	4.3
2000년대 (2000~2010)	6.1	5.8	9.9
2010년대 (2010~2014)	12.1	6.9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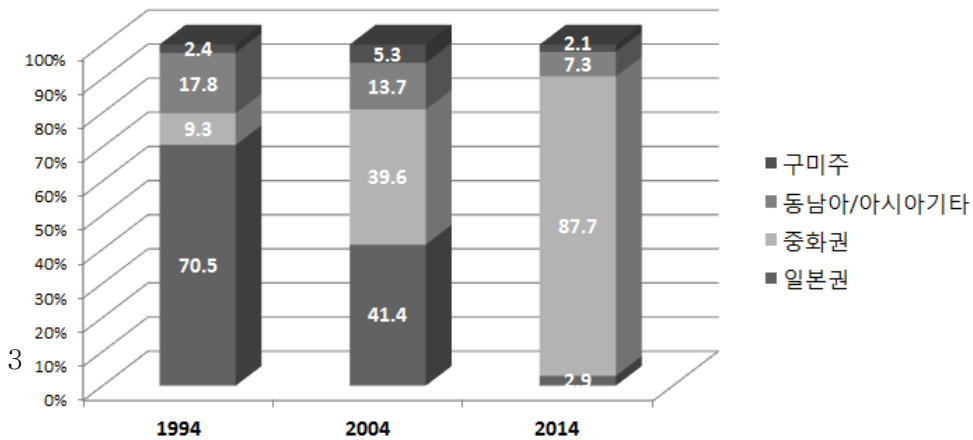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

이러한 최근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4-2014년 기간 주요 권역별 제주도 관광객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4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은 9.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일본 관광객 비중이 41.4%,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39.6%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말 중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2014년에는 중화권 관광객비중이 무려 87.7%에 달하고 있다<sup>12)</sup>.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유럽 등의 외래관광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를 참조.



[그림 5] 권역별 제주도 관광객 비율 추이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제주도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 상승과 제주-중국 간의 국제노선 확충, 국제 크루즈선 입항 증가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sup>13)</sup>. 제주도는 중국 동부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근거리 해외여행지로서의 매력에 높다. 또한 무사증 입국허용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여타 지역에 비해 입국절차가 간편한 것도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불어 한류 확산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가운데, 유네스코 3관왕 선정 등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제주특별자치도(2014), p.104를 참조.



## 제 2 절 세계유산 등재 과정 및 현황<sup>14)</sup>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인류 공통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의 보호를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5)</sup>. 여기서 세계유산은 인류 문화활동의 산물인 문화유산과 뛰어난 경관이나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Heritage)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유네스코는 정의하고 있다<sup>16)</sup>.

각 세계유산의 구체적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문화유산은 크게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크게 구분한다<sup>17)</sup>. 기념물은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건조물군은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유적지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

14) 김범훈(2010)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 등을 참조

15) UNESCO(1972), p.2.

16) 상계서, p.3.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를 참조.



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나,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세계유산 등재는 자연유산으로써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거나,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또한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거나,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의 현장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서식지라는 자격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sup>18)</sup>.

2015년 현재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91개국이며, 세계유산 등재 현황은 전 세계 163개국에 총 1,031점(2015년 7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은 802점, 자연유산 197점, 복합유산이 32점이 등재되어 있다. 대륙별로는 전체 세계유산의 약 절반가량이 유럽과 북미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와 태평양에는 약 20%정도가 위치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자연

18) 김범훈(2010)을 참조



유산이 약 20%, 복합유산이 약 3%로 수준으로 문화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현황은 2015년 가장 최근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총 12점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목록은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창덕궁(1997년), 수원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로 이중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만이 유일한 자연유산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중 파괴 위험에 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등재 뿐 아니라 세계유산의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및 보호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면 정부나 시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이 높아져, 유산 보존 및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여기에 더해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유산 관리자뿐 아니라 관련 공동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내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적지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경우 매년 보존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정기 보고는 6년을 주기로 대륙별로 나누어 당사국들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밤 지역의 이란 도시, 군사활동 및 폭발로 손상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계곡, 도시화로 역사적 도시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는 예멘의 자비드 역사도시 등 46점이 있다.



뛰어난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객 증가,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고용 확대 및 국가적 지원 확대, 세계유산기금을 통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지역에 제공되는 실질적 도움도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sup>19)</sup>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① 잠정목록 등재, ② 본 신청서 제출, ③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 ④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잠정목록 등재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다. 잠정목록 등재는 특별한 심사 절차가 없으며,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 성격으로 수시로 갱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12점 외에도 문화유산 13점, 자연유산 4점을 잠정목록에 등록해 두고 있다.

---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를 참조.



<표 3> 우리나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구분	유산명	소재지	등록일
문화유산	강진 도요지	전남 강진군	1994.9.1
	중부내륙산성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2010.1.11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2010.1.11
	익산 역사유적지구	전북 익산시	2010.1.11
	염전	전북 신안군, 영광군	2010.1.11
	대곡천 암각화군	울산시	2010.1.11
	낙안읍성	전남순천시	2011.3.11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2011.3.11
	서원	경북 영주시, 경주시, 안동시, 경남 함양군, 전북 진읍시, 전남 장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남 논산시	2011.12.9
	서울 한양 도성	서울시	2012.11.23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김해시, 함안군	2013.12.1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고령군	2013.12.12
	한국의 전통산사	순천시, 해남군, 보은군, 공주시, 양산시, 영주시, 안동시	2013.12.12
자연유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등	1994.9.1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전남 해남군, 보성군, 화순군, 여수군, 경남 고성군 등	2002.1.25
	서남해안 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등	2010.1.11
	우포늪	경남 창녕군	2011.1.11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

다음으로 본 신청서 제출은 예비신청서 접수 및 본 신청서 접수로 진행된다. 예비신청서 접수는 매년 9월 30일까지로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을 검토 및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 신청서 접수 매년 2월 1일 까지로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된다. 그리고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는 유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해당기구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복합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동 조사로 평가가 수행된다. 현지조사는 통상 당해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각각의 자문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자연유산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먼저 해당 유산의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등을 수집하고, 소수의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거친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당사국에 파견하고, 신청서의 진위와 유산의 보호 및 관리 상태를 평가한 후 기술보고서를 제출받아, 당해 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한 패널회의(Panel Review)를 개최한다. 패널회의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계유산센터에서는 7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를 구성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등재(Inscription)’, ‘보완(Referral)’, 또는 ‘등재불가(Not to Inscription)’로 구분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각 권고안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세계유산 심의 권고안 및 조치사항**

결정사항	내용	조치사항
등재 (Inscription)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Not to Inscription)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



마지막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정은 세계유산센터 집행이사회 의 권고안을 토대로 매년 6, 7월에 개최되는 21개국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의(World Heritage Committee Meeting)에 회부하여 최종심의를 거쳐 공포한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불가’로 권고가 나와서 등재가 거부될 경우, 같은 유산에 대한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유산을 다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3.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 및 현황<sup>20)</sup>

제주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 1월에 제주자연유산지구 등 7건을 잠정목록으로 확정하고, 2002년 3월 22일 제주자연유산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결정하였다. 제주도 문화재청은 기존에 이루어진 학술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전문가가 공동으로 실시한 학술조사는 일본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야쿠시마(屋久島), 호주 언다라용암동굴(Undara lava tubes), 미국 하와이(Hawaii) 등 외국 자연유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자연유산지구 중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주제 및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화산활동의 근거와 용암동굴의 2차 생성물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라산, 산굼부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주상절리대, 산방산, 수월봉 퇴적암층 등을 세계자연유산 신청대상지로 잠정 확정하였다.

본격적인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위해 2004년에 제주도에서 기존 학술조사

<sup>20)</su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를 참조.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자연유산지구 등재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등재추진위원회, 등재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외국 자연유산과 비교자료 및 관리계획이 미흡하고 신청서의 구성 및 논리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자체 의견에 따라 2005년부터 등재신청서 보완 작업이 실시되었다. 보완 작업을 위한 학술조사팀은 제주의 자연유산과 영국, 이탈리아, 하와이 등 해외 세계자연유산과의 정밀 비교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 작성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지 중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성산일출봉을 등재 신청대상지로 확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등재 후 확정구역에 포함여부를 검토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 1월 지역주민과 협의를 완료한 이후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2006년 등재신청서의 제출 이후에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후보지를 홍보하기 위한 대외 홍보 활동 및 제주도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기 위한 도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2006년 10월에 실시된 유네스코 현지 실사를 앞두고 8월부터 시작한 등재 염원 서명운동은 제주도민, 국내·외인을 포함하여 150만 명 이상이 동참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회 홍보 활동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대적인 서명활동은 현지실사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열의로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sup>21)</sup>.

현지실사가 종료된 후 2006년 12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1차 패널회의 및 2007년 2차 패널회의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07년 6월 23일부터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압도적 지지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의 유산명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21) 김범훈(2010)을 참조



Island and Lava Tubes)’이다. 총 면적은 18,846ha로 유산면적 9,475ha 과 완충 지역 9,371ha로 구성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먼저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신생대 제4기(약 180만년전부터 현재까지) 화산활동을 대표하는 화산으로 제주도의 중심에 위치한 순상화산체로서, 화구호와 영실기암의 주상절리, 조면암돛, 용암대지 등 다양한 화산학적 특징과 독특한 화산지형 형성사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은 약 5천년 전 수성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으로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가 잘 드러나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응회구 지형이다. 마지막으로 거문오른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으로부터 분출된 용암류가 지형경사를 따라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빙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과 그 외 여러 개의 용암동굴들을 형성한 지형으로 천장과 바닥이 다양한 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용암 벽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힌다. 이처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은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제 3 절 제주도 투자이민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육성하고자 제주국제자유 도시를 출범시켰고, 제주특별법상의 차별화된 권한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은 다소 부진하였으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주로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콘도 분양권과 영주권 부여를 매칭하여 인센티브로 제시하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의 특정 부동산 투자 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동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sup>22)</sup>.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한 시설에 대해 매매,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않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해야 인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며,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2)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 홈페이지를 참조.



<표 5>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외국인 체류 자격

구 분	거주(F-2)	영주(F-5)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1 27-차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1 28의3-하목
체류기간	최초 3년(연장가능)	영구
요건	미화 50만불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 체류 시설(콘도 등) 매입, 보유	F-2 비자를 5년 이상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	투자자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1 (방문동거비자) 발급	투자자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 가능
특징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 갱신시에만 방문해도 됨	영주권 발급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 변경 가능
비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영주권 불허 결정시 F-2로 연장 가능

주: ( )는 체류 자격 기호를 의미

자료: 법제처, 법무부 고시. 강동관(201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재인용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영주권 취득 외에도 체류여건, 교육과정, 의료보험, 부동산 처리, 취업자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표 6>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용
영주권 취득	거주자격(F-2) 확보 후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자격(F-5) 확보
체류여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역 이외 국내 타지역 방문 및 거주 자유(체류지 변경신고 후)
교육과정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등록 가능
의료보험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 적용
부동산 처리	영주권 획득 후 보유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가능
취업자격	투자자의 배우자 및 동반가족의 취업 및 영리행위 가능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 홈페이지를 참조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라도 자금 투자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으로의 이민이 가능할 뿐 아니라 투자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반면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처럼 지역의 경제구조에 변화를 야기하는 관광개발 정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up>23)</sup>.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관광지 개발 후 분양될 관광 시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외국인 자본의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휴양관광지개발 사업 증진,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효과, 후생효과, 외환보유증대 효과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은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로 꼽힌다<sup>24)</sup>. 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부정적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국내에서 재투자 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많이 축소되어 부동산 투자유치제도의 기본 도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sup>25)</sup>.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이민이 가능한 지역은 총 5개 지역 6개 권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시행은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강원과 전남, 인천 등 3곳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부산 내 2개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

23) Gursoy et al.(2002). 이형주 & 김인신(2014), p.412에서 재인용

24) 김정수(2003)를 참조.

25) 이규환(2005)을 참조.



<표 7>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 및 현황

구분	제주	강원	전남 여수	인천	부산	
투자지역	제주 전역	대관령 알펜시아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영종지구 송도, 청라지구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시행일	2010.2월	2011.2월	2011.8월	2011.11월	2013.5월	
종료일	2018.4월				2018.5월	
투자대상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 등					
투자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특 징	약 1,441건, 9,600억원 유치 (`14.9월)	10억원에서 하향조정 (`13)	-	*15억원에서 하향 조정 *체육시설과 연계 된 주택, 미분양 주택 추가	-	-

자료: 법무부, 제주도 홈페이지, 이종아(201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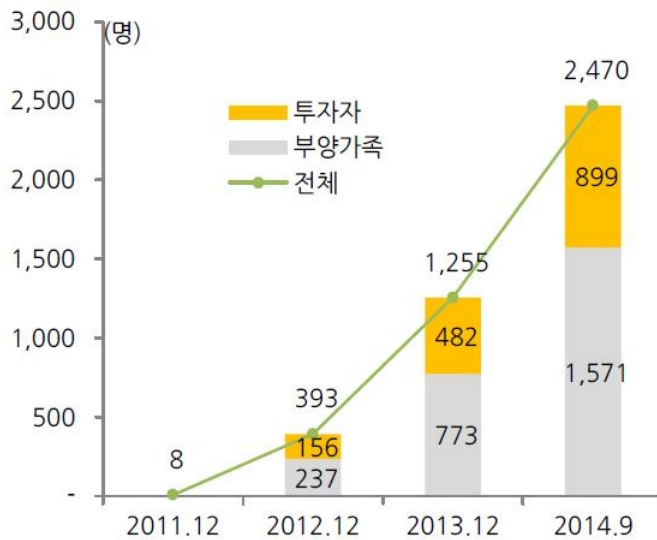
대상 지역은 대체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경기 침체 및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자본 투자만으로는 개발 완료가 어려운 지역이 선정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투자 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및 호텔이나 펜션 등 레저 시설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투자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3년 3월 골프장내에 빌라를 추가시킨대 이어, 2014년 9월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자 대상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지역마다 약간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5억원 또는 7억원 등의 최저 투자 금액 기준을 명시한다. 또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청,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5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2013년 5월) 하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체류 자격 획득 추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9월 기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주 비자(F-2-8)를 받은 외국인 수는 약 899명이며 부양가족까지 감안할 경우 약 2,47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3년 말 대비 약 97% 증가한 수준이며 2012년 말보다는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외국인의 레저용 토지 보유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중 레저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말 약 2.7% 수준에서 최근 5.6%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6] 부동산투자 체류비자 발급 추이



자료: 법무부, 이종아(2013)에서 재인용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 실적은 제주도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실제 타 지역에서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유치 실적은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1,580건이 분양되어 1조 947억원 수준이나, 타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표 8>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 및 현황

연도별	분양		거주비자 발급(F-2)
	건수(건)	금액(백만원)	
2010	158	97,616	3
2011	65	54,440	4
2012	121	73,385	136
2013	667	453,154	308
2014	508	347,279	556
2015	61	68,911	278
계	1,580	1,094,785	1,285

주: 거주비자 발급 1,285건 중 중국인 1,268건(98.5%), 기타 17건(홍콩6, 영국2, 이란2, 몽골1, 태국1, 캄보디아1, 노르웨이1, 마카오1, 싱가포르1, 미국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5a)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향후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실제 일본인 및 중화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주요 요인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2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다양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내에서는 일정금액을 투자한 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자격 등도 유연하게 운영<sup>27)</sup>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이민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을 조정<sup>28)</sup>하고 투자 대상 확대 등의 지속적인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

26) 고학부(2013)을 참조.

27)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 분양 시 한 개 객실당 5인 이상을 수분양자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한 개 객실당 1인 분양을 허용함

28) 강원 평창 알펜시아(최초 10억원)와 인천 영종지구(최초 15억원) 등은 장기간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여 2013년 5월 다른 투자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금액을 조정함



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제약 등의 한계로 인해 큰 폭의 투자 이민 유치는 아직은 다소 불투명하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단기간 중국인 투자자가 집중되며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는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함께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유치제도를 통한 거주비자 발급 1,285건 중 중국인이 98.5%(1,268건)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9월말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3%로 2011년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0.47%, 미국 0.23%, 일본 0.13%의 순이다<sup>29)</sup>.

이러한 중국인 투자의 집중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으나, 자연 경관 훼손 및 지역 주민과의 괴리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다. 제주도의 토지가격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이후 대체로 전국 토지가격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가 체류 요건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단기간 휴양 시설에 대해 투자되고 있어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침체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자금액 상향 및 부동산과 채권의 혼합 투자(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지역을 관광지나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29) 제주특별자치도(2015b) 자료.



## 제 III 장 기존 문헌연구

### 제 1 절 관광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 1.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연구 동향

관광 분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만 해도 학술저널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관광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경이로울 만큼 증가하여 2015년 현재는 70개 이상의 저널이 관광산업을 주제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관광 분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에 대한 연구이다.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에 대한 연구는 1960-2002년 기간 동안 420개에 달하며, 2000-2006년간 121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0)</sup>. 이 기간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의 주요 쟁점은 관광수요 모형설계 및 추정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비교, 다양한 관광지들에 적합한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등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광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광수요 예측 모형의 적합성은 추정에 사용한 자료의 빈도(data frequency), 분석대상 국가(destination-origin country) 등에 따라 달라진다<sup>31)</sup>.

30) Li et al.(2005)와 Song & Li(2008)을 참조.



즉, 관광수요 추정에 하나의 만병통치약이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Witt & Song(2000)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관광수요 모형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모형의 설계나 추정이 2차 데이터의 사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관광수요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의 수가 과거의 연구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목적에 따라 총 관광객 수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Turner & Witt(2001a, 2001b)에서는 관광 목적에 따라 휴가를 위한 관광, 비즈니스 관광,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관광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광객 수를 사용하였으며, Coshall(2005), Rosselló(2001)에서는 항공사별 관광객 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관광객 수 이외에 다른 변수를 관광수요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 Li et al.(2004, 2006b)에서는 관광지에서의 지출을 관광수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관광지에서의 특정 관광 상품에 대한 지출을 사용한 연구들도 있는데, Au & Law(2002)는 식비(meal expenditure)를, Au & Law(2000)은 관광비용(sightseeing expenditure), Law & Au(2000)은 쇼핑비용(shopping expenditure) 등을 관광수요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외 Witt et al.(2004)는 관광수입(revenue)과 관광산업 고용, Smeral(2004)는 관광수입 및 수출 등을 관광수요 측정을 위한 2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관광수요 모형 및 예측 연구는 사용하는 2차 자료의 구득 가능성에 따라 분석 가능한 지역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분석대상 관광지 혹은 관광객들의 출발국가로 가장 많이 분석되었으며, 호주, 스페인, 홍콩, 한국, 중국도 종종 관광지로 분석대상에 사용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국제 관광수요의 주요 원천(key source)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서유럽은 전통적으로 국제 관광산업의 주요 시장이며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여전히 주목 받고 있으며, 아시아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

---

31) Witt & Song(2000)과 Li et al.(2005)를 참조



장으로 인해 관광수요 예측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Song & Li(2008)는 최근 2000-2006년간 관광수요 모형 및 예측 관련 연구 121개를 분석방법 및 주요내용 등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인 분석방법, 예측의 정확성, 분석대상의 조합 또는 통합, 관광산업의 경기순환 또는 전환점, 방향성의 변동이나 계절성 요인, 특정 사건의 영향 분석이나 리스크 예측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에서는 Song & Li(2008)의 분석결과와 보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방법, 계절성 요인이나 특정 사건의 영향 분석 방법 등을 차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최근 연구의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방법

Song & Li(2008)은 최근의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연구를 양적인 면에 대한 연구와 질적인 면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양적인 면에 대한 연구는 인과관계를 배제한 단순 시계열 분석방법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방법의 주요한 차이는 관광수요와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간 인과관계를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Song & Turner(2006)은 관광수요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양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Song & Li(2008)에서 정리한 2000-2006년간 이루어진 121개의 연구들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 중 72개의 연구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68개의 연구는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예측을 병행하였다. 한편, 121개 중 71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30개 연구에서는 관광수요와 이를 설명하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다룬 반면 41개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뿐 아니라 모형을 활용한 관광수요 예측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도 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양적인 측면의 계량경제학적 접근과 함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관련 연구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시계열 분석방법은 변수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변수의 과거 추세 등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계절성 등과 같은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나 패턴 등에 주목하며, 이러한 트렌드나 패턴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변수 자료를 일정 시계열로 구득하기만 하면 분석이 가능하므로 자료 수집이나 분석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관광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방법은 Box & Jenkins(1970)가 고안한 ARIMA(autoregressive moving-average model)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한 관광수요 모형 연구의 2/3가 ARIMA 방법을 사용하였다<sup>32)</sup>. ARIMA 방법은 사용한 자료의 시계열 빈도에 따라 단순 ARIMA 혹은 계절성 ARIMA(seasonal ARIMA; 이하 SARIMA) 모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관광수요에 계절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분기단위 보다 더 잦은 빈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ARIMA 혹은 SARIMA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소 연구자에 따라 다소 모순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Cho(2001)는 ARIMA 모형이 다른 시계열 분석방법들에 비해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 있어 더 나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Goh & Law(2002)는 SARIMA 모형이 다른 시계열 분석방법보다 뛰어나며 ARIMA 모형의 분석결과도 모든 시계열 분석방법들의 평균 이상 수준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Smeral & Wüger(2005)는

---

32) Song & Li(2008)를 참조.



ARIMA 혹은 SARIMA 모형은 Naïve 1(수준변화가 없음을 가정) 모형보다도 나은 예측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ARIMA/SARIMA 모형에 대한 모순되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최근 ARIMA/SARIMA 모형을 다른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기존 단변량(univariate) 시계열 모형을 다변량(multivariate) 시계열 모형으로 차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과, 관광객의 출발국가에 따른 관광수요를 조사하여 두 개 이상의 시계열 자료(parallel time-series)를 사용한 예측력의 향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례로 Goh & Law(2002)는 두 개 이상의 관광수요 자료를 사용한 잠재적 전이효과(spill-over effects)를 분석할 수 있는 다변량 SARIMA 모형(이하 MARIMA; multivariate ARIMA)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다변량 SARIMA 모형이 다른 단변량 시계열 분석방법 뿐 아니라 단순 SARIMA에 비해 예측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Gustavsson & Nordström(2001)의 유사한 연구에서는 다변량 ARIMA 모형이 단변량 모형에 비해 더 낮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관광수요에 대한 단변량 시계열 분석의 확장은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 모형이다. GARCH 모형은 금융모형에서 주로 시계열의 변동성(volatility)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han et al.(2005)는 세 가지 다변량 GARCH 모형을 통해 관광수요의 변동성과 관광수요에 대한 다양한 쇼크의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수요는 호주 관광산업 시장의 주요 원천이 되는 4개 시장의 조건부 분산(conditional variances)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다변량 GARCH 모형의 예측력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 외 Naïve 1, Naïve 2(증가율 변화가 없음을 가정), 지수평활 모형(exponential smoothing model), 단순 자기회귀모형(simple autoregressive





model)등 은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도 예측력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계속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수요의 양적인 면에 대한 분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다. 시계열 분석방법과 비교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관광수요와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계열 분석방법은 변수간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가 모형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이나 정책적 함의 도출에 상대적인 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은 관광수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관광수요의 변화를 설명하고 관광산업 정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단순 시계열 분석방법은 관광수요와 관련 요인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

Li et al.(2005), Lim(1999) 등에 따르면 최근 관광수요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언급된 변수들은 관광객의 소득, 관광지의 관광상품 가격, 대체관광지와 비교한 상대적 관광상품 가격, 환율 등이다. 이러한 관광수요 결정요인 및 영향의 정도에 대한 연구는 관광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만일 관광상품 가격 또는 대체 관광지의 관광상품 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지니는 변수로 분석되었을 경우 해당 관광지의 정책입안자들은 대체 관광지의 가격전략에 매우 높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수요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은 학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종사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과 관련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문제를 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ADLM(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ECM(error correction model), VAR(vector autoregressive), TVP(time varying parameter) 등의 모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sup>33)</sup> 이들 모형 가운데 VAR 모형을 제외한 다른 모형들은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두 외생변수인 단일 방정식(single-equation) 모형이다. 반면, VAR 모형은 모든 변수들은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각각의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의 선형관계로 정의한다. VAR 모형을 사용한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연구로는 Shan & Wilson(2001), Song & Witt(2006), Witt et al.(2004) 등이 있다. ECM은 변수간의 공적분 관계를 조정한 모형으로 Kulendran & Wilson(2000), Kulendran & Witt(2003b), Lim & McAleer(2001a), Song & Witt(2000) 등이 관광수요 분석에 사용하였다. ADLM은 관광수요의 동태적 성향을 반영한 모형으로 Song et al.(2003) 등에 사용되었다. Li et al.(2006)은 TVP 모형과 ECM 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단일 방정식 모형인 TVP - CM을 사용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계량경제학적 관광수요 모형들은 예측력의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Kulendran & Wilson (2000)은 ECM이 SARIMA 및 Naïve 1에 비해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남을 보였고, 또한 Song et al.(2000)는 타 시계열 모형들에 비해 ECM 모형이 월등한 예측 정확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Song et al.(2003)은 TVP 모형이 다른 계량경제학 모형이나 ARIMA, Naïve 1등에 비해 가장 뛰어난 예측력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Li et al.(2006)은 관광수요의 수준이나 증가율 예측에 있어 TVP - CM모형이 다른 시계열모형이나 계량경제학 모형에 비해 훨씬 뛰어난 예측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TVP 장기 예측 모형과 TVP - CM 단기 모형은 관광수요 예측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관광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조건에서도 이런 우수한 예측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33) 각 모형에 대한 보다 기술적인 내용은 Song & Witt(2000)을 참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많은 연구들에서 VAR은 다른 계량경제학 모형들에 비해 관광 수요 예측에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Wong et al.(2006)은 기존의 무제약 VAR 모형에 서로 다른 제약들을 추가함으로써 세 가지 Bayesian VAR 모형을 고안하여 VAR 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VAR 이외의 다른 계량경제학 모형과의 예측력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Deaton & Muellbauer(1980)은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단일방정식 계량경제학 모형들과는 달리 여러 방정식들이 결합한 시스템이다. AIDS 방법은 경제학 이론에 더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대체관광지에 대한 대체효과 혹은 보완효과 등에 대한 탄력성 분석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관광수요에 대한 연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AIDS 방법을 사용한 관광수요 모형 및 예측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De Mello & Fortuna(2005), Durbarry & Sinclair(2003), Li et al.(2004), Mangion et al.(2005)등은 모두 ECM 및 선형AIDS(이하 LAIDS; linear AIDS) 모형 즉, EC-LAIDS 모형을 사용하였다. Li et al.(2004)은 EC-LAIDS 모형이 다른 정태 모형들에 비해 더 좋은 예측 결과들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하였으며, Li et al.(2006)은 TVP - R-AIDS과 TVP - CLAIDS 가 관광수요의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 월등함을 보였다. 반면 De Mello & Nell(2005)은 정태 AIDS 모형을 기존 VAR 모형과 비교한 결과 예측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패널분석방법(panel data approach)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사용함에 따라 시계열분석이나 기존 계량경제학 분석방법들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우선 패널분석방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모형의 추정에 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광수요 모형



분석 및 예측에도 시계열 기간이 짧거나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가 구득 가능할 경우 패널분석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패널 분석방법은 관광수요 분석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최근 2000년 이후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관광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sup>34)</sup>. Ledesma-Rodríguez et al.(2001)은 정태 및 동태 패널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테네리페섬의 관광수요를 분석하였다. Naudé & Saayman(2005), Roget & Gonzalez(2006)는 역시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43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광수요와 스페인 Galicia지역 관광수요를 분석하였다. Sakai et al.(2000)은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관광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패널분석방법의 관광수요 예측 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패널분석방법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의 구득가능성이다. 앞서 밝혔듯이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2차 자료의 사용인데 패널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2차 자료가 시계열 및 횡단면으로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였으나 패널분석방법은 분석에 사용하는 정보의 풍부함으로 인해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관광지는 자료의 획득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관광지에 대한 출입 교통수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순 관광객 수 뿐 아니라 국적별 외국인관광객 수 등 패널자료의 수집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34) Sakai et al.(2000), Ledesma-Rodríguez et al.(2001), Garín-Munõz(2004), Naudé & Saayman(2005), Roget & Gonzalez(2006) 등이 있다.



### 3.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한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 연구

여기에서는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한 최근의 관광수요 모형분석 및 예측연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Ledesma-Rodríguez et al.(2001)에서는 유럽에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 테네리페섬의 관광수요 결정요인 및 그 탄력성을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들은 패널분석을 사용할 경우 개별 이분산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공선성(collinearity)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자유도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작은 샘플로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태분석(adjustment dynamics) 등 보다 복잡한 행동을 고려한 모델 설계에도 우수하므로 패널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패널분석에도 자료 설계,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로 인한 왜곡(bias), 선별의 문제(selection problems), 시계열의 기간 등에 따른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desma-Rodríguez et al.(2001)에서는 테네리페섬의 주요관광객을 구성하는 13개 국가에 대해 1979-1997년간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에 사용한 관광수요 변수는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관광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출입국 기록을 사용하는 대신 관광지 숙박업소에 투숙한 관광객 수를 사용하였다. 관광수요의 결정요인으로는 소득변수와 가격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도 홍보비용, 인프라 등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소득변수는 대부분의 연구와 유사하게 1인당 실질 GDP를 사용하였고, 가격변수는 관광비용과 여행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광비용은 환율을 고려한 출발국가 대비 테네리페섬의 관광물가 지수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여행비용은 원유가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비가격경쟁 등의 관광수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홍보비용과 인프라 변수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이들 변수는 소득변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각각 소득변



수를 대체한 모형을 구성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정태모형과 동태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정태모형은 FE(fixed effects),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단기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동태모형은 FE 모형에 종속변수의 1기간 래그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장기탄력성을 추정하였다. Ledesma-Rodríguez et al.(2001)은 FE 모형을 사용한 장단기 탄력성 추정결과 1기간 래그 변수가 유의하게 분석되어 관광수요 모형분석을 위해서는 동태적인 모형의 사용이 타당하며, 해당 관광지의 도적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이 명성으로 퍼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동태모형은 FE 모형 이외에도 FD(first differenc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및 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FE 동태모형 분석결과 테네리페섬 관광수요의 단기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FD 동태모형 분석결과 오히려 1보다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Crouch et al.(1992)에 따르면 기존 실증연구에서 FE 모형의 추정치는 가장 작은 값에 가까운 반면 FD 모형의 추정치는 대체로 평균에 가깝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Ledesma-Rodríguez et al.(2001)은 패널자료의 다양한 계량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래그 변수를 포함한 동태 분석모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FD방법이 FE방법에 비해서 탄력성이 보다 작게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정결과 테네리페섬 관광수요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광광비용과 여행비용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와 홍보 지출비용 역시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유의하게 나타나 관광객의 의사결정 모형에 고려해야 할 변수로 보았다. 따라서 테네리페섬의 관광정책은 주요 관광 수출 국가의 경기변동을 민감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산업 종사



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등에 의한 관광지의 이미지 관리, 관광 및 여행에 드는 경비나 홍보 및 인프라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Garín-Munõz(2004)에서는 카나리아 제도의 관광수요 모형을 주요 15개 국가의 1992-2002년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관측이 어려운 국가별 차이(country-specific effects)를 고려하기 위해 dynamic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관광수요의 동태적 행태를 고려하고 장, 단기 탄력성을 함께 추정하기 위해 관광수요의 래그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관광수요를 관광객 수로 측정하고, 관광객의 소득, 관광지 생활비용, 교통비용을 관광수요의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관광객의 소득은 각 소속국가의 1인당 GDP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관광지 생활비용은 카나리아 제도의 관광소비 물가지수를 각 국가의 물가지수에 환율을 곱한 값을 나누어 생활비용 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용은 원유가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9.11 등 국제 테러리즘으로 인해 국제 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0, 2001년의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관광수요의 종속변수가 유의하게 관측되어 Garin-Munoz & Perez-Amaral(2000)의 기존 스페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대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지 선택에 대한 구전효과(word-of-mouth)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나리아 제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탄력성에 대한 추정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관광수출국의 경제적 상황이 관광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주요 관광수출



국의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1인당 GDP가 유사한 국가의 관광객들 간에도 소득 분배 수준에 따라 명백히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변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외 관광지에서 소요되는 비용, 교통비용, 외부 충격(external shocks) 등도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관광지 물가의 경쟁력이나 국제 관광수요의 외부 요인 등에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대부분이 휴가를 위한 관광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광에 비해 물가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제 2 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특정 관광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및 등재되면 흔히 이로 인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효과를 일부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효과라 칭하고 있다<sup>35)</sup>. 이는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재화를 구매하려는 것에 비유하여 대중에 공표되는 특정 리스트에 등재되어 관광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sup>36)</sup>.

Yang et al.(2010)에서는 2000-2005년 기간 지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국제 관광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광객 수 결정요인은 국가별 상대소득, 인구, 여행비용, 관광 인프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 관광객 수를 크게 증가

35) 조강철 외(2014)를 참조

36) 관련 연구로는 Yang et al.(2010), Huang et al.(2012), Su and Lin(2014), Roh et al.(2015) 등이 있다





시키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et al.(2012)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카오 역사 센터(“Historic Centre of Macau)’에 올라 있는 세계유산의 방문객 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저자들은 세계유산 등재가 단기적인 관광객 증가 이외의 관광 홍보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이러한 단기적 효과는 주로 아시아 관광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Su & Lin(2014)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관광지로 인한 국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세계 66개국의 2006-2009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계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광객 수에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자연유산보다 문화유산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국가별 세계유산 및 관광객수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다.

Roh et al.(2015)에서는 세계유산을 무형(intangible)의 것과 유형(tangible)의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계유산의 국가별 수량 변화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세계 72개국의 1995-2012년 패널자료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관광객 수가 증가할 확률을 로짓(logit)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형의 유산에 비해 유형의 세계유산이 증가할 때 세계유산 등재의 관광수요 증가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의 세계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이 자연유산에 비해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은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으로 인한 관광의 베스트셀러 효과를 추정한 조강철 외(2014)의 연구보고서가 유일하다. 동 보고서에서는 유네스코 세



계유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의 획득이 관광수요에 미친 베스트셀러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뿐 아니라 국내 여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도 베스트셀러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이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에 유용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국내 16개 시도, 2006-2012년 패널자료<sup>37)</sup>를 이용한 이중차분모형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은 정책 실행이나 특정 현상 발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계량경제학 방법으로, 해당 정책 또는 현상이 없었을 경우의 상황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험집단(Treated Group)과 비교하여 정책 및 현상의 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베스트셀러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관광객수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베스트셀러 효과는 실험집단의 관광객수 변화에서 통제집단의 관광객수 변화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이후 해당 유산 보유 지역의 내국인 숙박여행 총량이 미보유 지역에 비해 약 13%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된 국내 6개 유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선정 전후의 관광객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해인사를 제외한 모든 세계유산에서 선정 당해년의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당해년 이후에도 관광객 수 증가세가 지속된 유산은 경주 역사유적지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뿐이었으며 석굴암·불국사, 조선왕조의 왕릉, 하회·양동마을은 관광객 수가 줄거나 정체되었다. 그러나 조강철 외(2014)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연도 이후 관광객수 증가세가 정체되었던 조선왕조의 왕릉 및 하회·양동마을의 경우 여타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베스트셀러 효과가 최소 2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37)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우리 국민의 여행지(16개 시도)별 국내여행 이동총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강철 외(2014)에서는 2000-2013년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추정하였다. 중력모형 또는 공간상호작용모형(Spatial Interaction Model)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관광, 교역, 이주, 통근 등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 연구에서는 ① 출발국의 추진요인, ② 제주의 견인요인, ③ 출발국과 제주간 거리 및 ④ UNESCO 세계유산 선정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중력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출발국의 추진요인으로는 출발국의 1인당 GDP와 인구를, 제주의 견인요인으로는 환율, 제주의 치안상태, 출발국과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 운항편수 등을 선정하였다. 동 모형에서는 UNESCO 세계유산 선정 더미변수의 계수를 베스트셀러 효과로 해석하고, 중력모형 활용을 위해서는 출발지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관광객 수 통계가 필요하므로 분석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였다. 추정 결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세계유산 선정 이후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수가 약 18%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2007년 및 1년 후인 2008년까지는 베스트셀러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는 베스트셀러 효과가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해외홍보 노력 강화, 제주의 인지도 제고, 외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지 선택 등에 시차가 존재하여 실제 외국인 관광객수가 늘어나기까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추정 결과를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으로 환산한 결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베스트셀러 효과는 각각 2009~2013년 중 연평균 6만 7천명 및 894억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하였다.



## 제 IV 장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정책 도입 효과

### 제 1 절 자료 및 기초통계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 분석에는 주로 제주도 관광통계 및 주요국 환율 및 실질 GDP 통계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기간은 주요 변수별 가용년도를 고려하여 최장기간인 1999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로 하였으며, 월별데이터를 사용하되 GDP와 같이 월별 자료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 데이터를 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관광객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월별외래객입국자 수를 사용하였다. 제주도 관광객수(내국인, 외국인)와 제주도 관광수입(내화, 외화) 자료는 제주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월별 제주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통계와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자료를 정리하여 활용하였다. 월별 집계가지 되지 않는 실질 GDP는 분기별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하였고, 분기별 증가율을 계산한 후 해당 분기내 월별로 동일한 증가율을 가정하여 월별 증가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2010년 기준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일본 실질 GDP는 일본 통계청(Statistics Bureau of Japan)의 2005년 기준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중국 실질 GDP는 중국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명목 GDP를 토대로 세계은행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중국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실질 GDP로 변환하여 사용<sup>38)</sup>하였다. 대미 환율 및 대



중국, 대일본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국 평균 환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 수입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제수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교통비용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유가격은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3가지 대표 유종의 평균 가격<sup>39)</sup>을 사용하였다. 물가상승률은 OECD의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sup>40)</sup>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에 사용한 제주도 GRDP는 제주 통계연보에 발표되는 2010년 기준가격 제주도 GRDP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자료의 분석기간은 해당 통계의 가용기간인 1994년에서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위에서 설명한 각 기초통계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비율변수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전기 대비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요약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

38) 중국의 경우 계절조정이 되지 않은 자료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GDP 증가율은 춘절기간 생산 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해 계절 변동이 비교적 큰 특성이 있다.

39) Crude Oil (petroleum), simple average of three spot prices; Dated Brent, West Texas Intermediate, and the Dubai Fateh, US

40) <https://data.oecd.org/price/inflation-cpi.htm>



<표 9> 변수별 요약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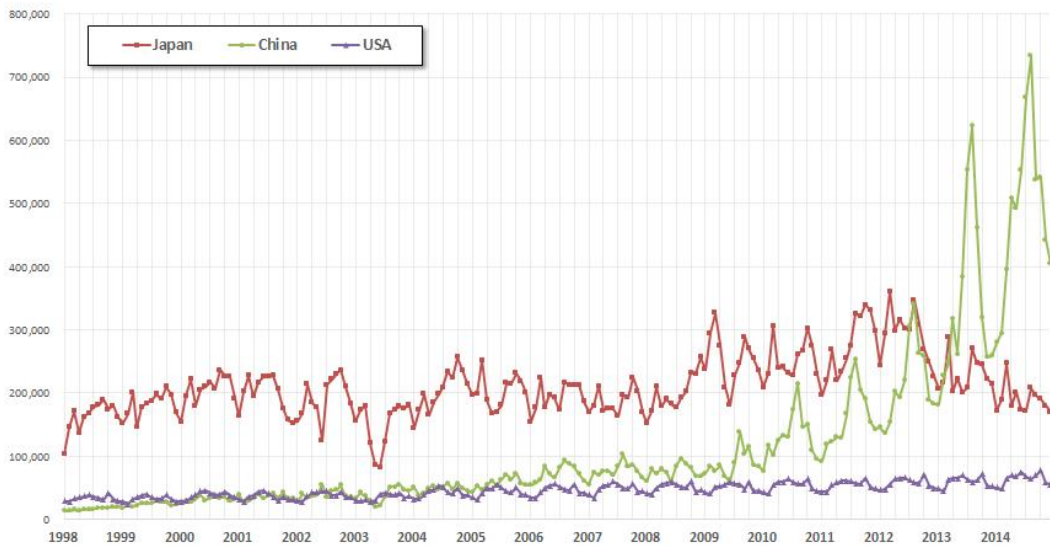
구분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월별 자료	한국 외국인 관광객 수 (KOREA_ARR)	192	0.55	9.58	-24.36	24.51
	제주 외국인관광객 수/ 한국 외국인관광객 수 (JEJU_KOREA)	192	9.00	5.81	2.42	32.89
	제주 외국인관광객 수/ 제주 총 관광객 수 (JEJUFOR_JEJUTOTAL)	192	10.57	6.58	1.80	38.34
	제주 외화 관광수입/ 제주 총 관광수입 (JEJUREV_JEJUTOTAL)	180	27.44	9.02	9.06	63.55
	대 중국 환율 (CHINA_EXCH)	192	0.10	2.45	-8.50	16.06
	대 일본 환율 (JAPAN_EXCH)	192	-0.06	3.24	-9.79	22.42
	대 미국 환율 (USA_EXCH)	192	-0.05	2.43	-8.57	16.03
	원유가격 (OIL)	192	0.92	8.44	-31.18	20.14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KOREA_INflation)	192	0.23	0.10	0.01	0.49
	채화와 서비스 수출입 (TRADE)	192	0.82	7.37	-23.24	25.96
	한국 실질 GDP (KOREA_GDP)	192	0.38	0.35	-1.13	1.47
	중국 실질 GDP (CHINA_GDP)	192	0.76	29.23	-49.93	25.13
	일본 실질 GDP (JAPAN_GDP)	192	0.06	0.37	-1.36	0.89
연도별 자료	한국 실질 GDP (KOREA_GDP)	20	4.71	3.51	-5.88	10.19
	제주 GRDP (GRDP)	19	4.12	4.18	-7.79	12.71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추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관광객 수를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는 57.7%, 2014년에는 58.5%에 달한다.



1999년에서 최근까지 일본과 중국 관광객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4,358,758명이며 이 중에서 일본인 관광객은 50.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총 외국인관광객 10,810,470명 중에서 32.5%이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관광객의 비중은 1999년에는 6.7%로 낮았으나, 매년 서서히 증가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2013년에는 총 외국인관광객 11,866,055명 중에서 34.5%이고 2014년에는 총 13,908,927명 중에서 42.1%로 증가하여, 일본의 23.2%(2013년)와 16.4%(2014년)보다 앞서게 되었다.

[그림 7] 주요국가별 한국 방문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한편, 중국 본토를 벗어나는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매우 빠



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관광이 감소한 2003년과 2009년에도 중국 해외 관광은 큰 폭 증가했다. 최근 중국의 해외 관광객 수는 2013년 9,819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18.0%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해외 관광객의 관광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해외 관광객의 관광 지출액은 2001년 139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286억 달러로 1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2005년에 세계 7위,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국제 관광소비 국가가 되었다. 중국 해외 관광객은 쇼핑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선물 문화와 함께 사치품에 부과되는 높은 국내 세율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쇼핑은 중요한 여행의 일부이며, 특히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쇼핑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안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상품 구매력이 크게 상승한 점도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 면세 쇼핑의 약 20%가 중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41)</sup>.

이처럼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목적지에는 한국이 매년 10위 이내에 속해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 관광지로써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방한 중국관광객은 392만 명에 달해 일본관광객 수를 초과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성비는 여성관광객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여성관광객 비중의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한류문화 확산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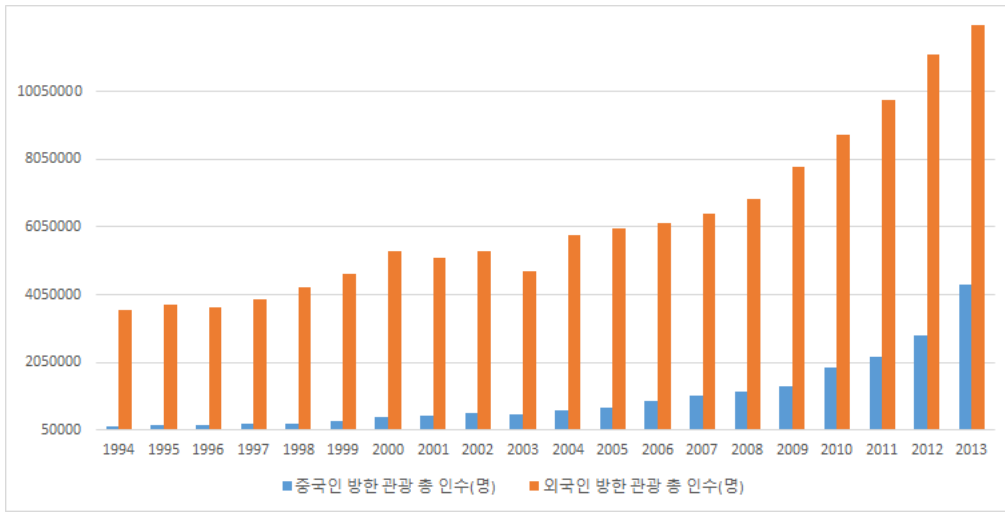
41) Wonderful Copenhagen Research, Development. Review of China's Outbound Travel Marke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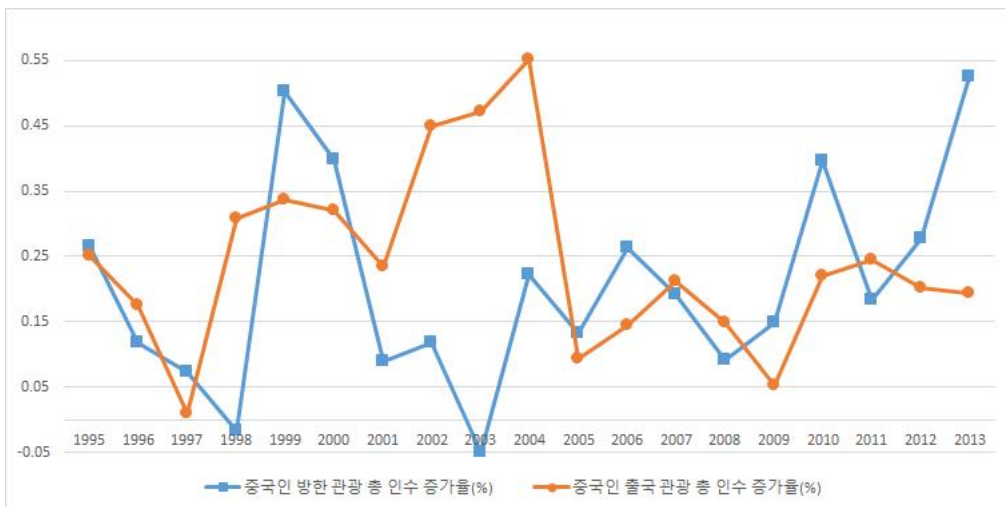
해 한류관광, 쇼핑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성 관광객들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8]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통계 2013

[그림 9] 방한 중국인 관광객 및 중국인 해외 관광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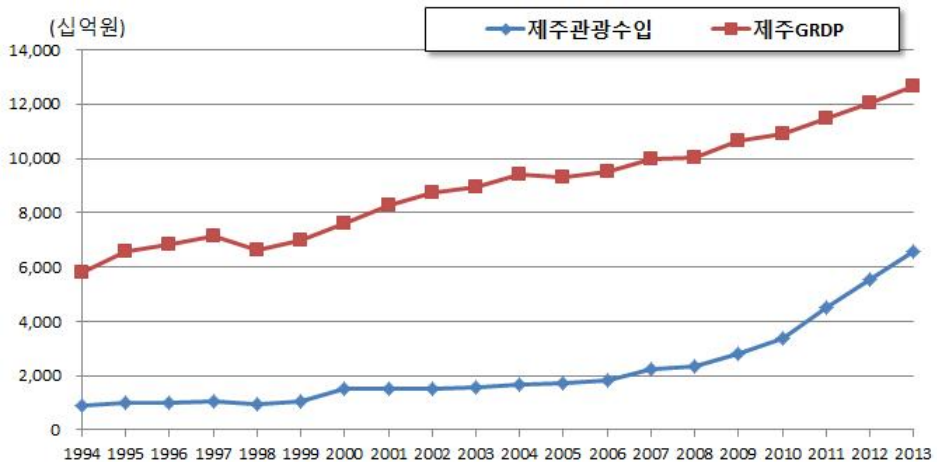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 2013 관광시장 분석



한편 제주도의 관광객 수 증가는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 관광수입은 1994년 8,894억원에서 2013년 6조 5,463억원으로 연평균 10.5%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관광객 증가율보다 더욱 빠른 증가세로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수입 증가가 아닌 부가가치 측면에서 제주 GRDP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5조 7,860억원에서 2013년 12조 6,642억원으로 연평균 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제주 GRDP 및 관광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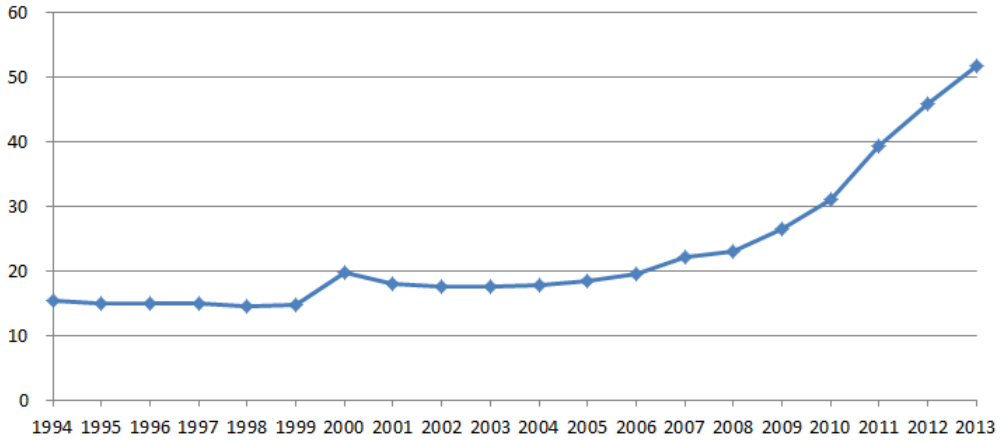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또한 제주도 지역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제주 GRDP 중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4년에는 15.4% 수준이었으나, 2013년 51.7%로 약 20년 기간 동안 3.4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산업 역시 관광객 추이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및 투자 유치제도의 효과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림 11] 제주 GRDP 중 관광수입의 비중



자료: 제주 통계연보 각년도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 제 2 절 모형과 분석방법

### 1.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여도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 이민 정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기존 연구의 관광수요 결정모형을 토대로 관련 설명 변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begin{aligned} Y_t =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 + \beta_1 \% \Delta EX_{t-1}^C + \beta_2 \% \Delta EX_{t-1}^J + \beta_3 \% \Delta EX_{t-1}^U \\ & + \beta_4 \% \Delta GDP_{t-1}^C + \beta_5 \% \Delta GDP_{t-1}^J \\ & + \beta_6 \% \Delta OIL_{t-1} + \beta_7 \% \Delta CPI_{t-1}^K + (\text{월 더미변수}) + u_t \end{aligned} \quad (5)$$

이때 종속변수인  $Y_t$ 는 제주도 외국인 관광의 활성화 정도를 의미하는 변수로 다음과 같은 비율변수를 도입하여 3차례에 걸쳐 각각 분석하였다.

- ①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 /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 ②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 / 제주도 총 관광객 수
- ③ 제주도 외화 관광수입 / 제주도 총 관광수입

제주도 외국인관광 수요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는 단순히 관광객 수와 같은 수준(level)변수가 아닌 비율(ratio)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비율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광수요에 미치는 각 시점에서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율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만을 사용할 경우 한국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추정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율 변수를 사용할 경우 이를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UNESCO)와 투자이민정책의 도입(INVEST)이 제주도 관광수요에 기여하는 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비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계절적 변동도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율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종속변수에 대해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변수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요에 대한 영향에 추가로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변수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UNESCO)와 투자이민정책의 도입(INVEST)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각각 세계유산 등재 혹은 투자이민정책을 도입한 해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즉, UNESCO는 2007년 이전은 0, 2007년을 포함하여 그 이후는 1인 더미변수이고, INVEST는 2010년 이전은 0, 2010년을 포함하여 그 이후는 1인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비용에 영향을 주는 환율(EX), 원유가격(OIL)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관광객 출발국가의 소득수준 변화가 관광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Morley, 1998; Song et al., 2003)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해당국 실질 GDP(GDP)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환율과 원유가격, 실질GDP는 모두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수요의 경우 외환위기나 메르스 발생 등과 같이 각 시점별 특정한 사건 발생에 크게 민감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관광수요 추정에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time-specific effects)를 조정하였다. 민충기(2015)에서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시점고유효과가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로 해석하여, 이로 인한 내생성문제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한 GMM 추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민충기(2015)에서는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도구변수로 Dagenais and Dagenais(1997)에서 제시한



측정오차가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2차 이상의 적률(higher moments)을 이용한 7가지 도구변수 중 유한표본에서도 외생성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제약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Z_2, Z_3)$ 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민충기(2015)와 동일하게 래그값과 2차 이상의 적률( $Z_2, Z_3$ )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GMM 추정을 통해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OLS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관광수요 추정에 있어 시점고유효과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 2. 제주도 GR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모형

제주도는 경제활동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 및 투자이민 정책의 도입은 제주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GRDP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및 투자이민 정책 도입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분석 모형은 우선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 \Delta GRDP_t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u_t & (6) \\ \% \Delta GRDP_t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 \alpha_3 \% \Delta (\text{제주도 외국방문객 수})_t + u_t \end{aligned}$$

종속변수는 제주도 GRDP(*GRDP*)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UNESCO*)와 투자이민정책의 도입(*INVEST*)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배제한 유네스코 등재 및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친 순효과(net effect) 만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모두 증가율 변수를 사용



하였으며, GRDP 조사 및 발표주기에 따라 1994년에서 2013년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변동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제주도 GRDP 비중을 종속변수( $GRDP/GDP$ )로 사용하는 다음의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left(\frac{GRDP_t}{GDP_t}\right)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u_t \quad (7)$$

$$\left(\frac{GRDP_t}{GDP_t}\right)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alpha_3 \% \Delta(\text{제주도 외국방문객 수})_t + u_t$$

### 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기여도 분석 모형

제주도의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3.4%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제주도 외국의 관광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다른 여행지로의 연계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정책의 도입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begin{aligned}
\% \Delta ARR_t = & \alpha_0 + \alpha_1 UNESCO_t + \alpha_2 INVEST_t + \sum_{j=1}^3 \alpha_{3,j} \% \Delta ARR_{t-j} \\
& + \sum_{j=1}^3 \beta_{1,j} \% \Delta EX_{t-j}^C + \sum_{j=1}^3 \beta_{2,j} \% \Delta EX_{t-j}^J + \sum_{j=1}^3 \beta_{3,j} \% \Delta EX_{t-j}^U \\
& + \sum_{j=1}^3 \beta_{4,j} \% \Delta GDP_{t-j}^C + \sum_{j=1}^3 \beta_{5,j} \% \Delta GDP_{t-j}^J \\
& + \sum_{j=1}^3 \beta_{6,j} \% \Delta OIL_{t-j} + \sum_{j=1}^3 \beta_{7,j} \% \Delta CPI_{t-j}^K + \sum_{j=1}^3 \beta_{8,j} \% \Delta TRADE_{t-j} \\
& + (\text{월 더미변수}) + u_t
\end{aligned} \tag{8}$$

종속변수로는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 $ARR$ )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앞서의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UNESCO$ )와 투자인민정책의 도입( $INVEST$ )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관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광수요 추정 모형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수( $ARR$ )의 래그값, 환율( $EX$ ), 원유가격( $OIL$ ), 중국 및 일본 실질 GDP( $GDP^C$ ,  $GDP^J$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CPI^K$ ) 및, 교역액( $TRADE$ )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든 변수는 증가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들의 래그값은 (1-3)기 이전 관측값까지 포함하였다.

한국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에서도 앞서 제주도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지 않은 단순 OLS 분석과 조정한 GMM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비교하였으며, 시점고유효과의 조정을 위한 GMM 분석에서 래그값과 2차 이상의 적률( $Z_2$ ,  $Z_3$ )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 4.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의 조정

관광은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외부적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광수요 결정 모형 또는 관광수요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모형에서는 주요 설명변수 외에도 매 시점마다 생기는 특정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외환위기, 메르스 발생 등의 특정 시점의 외부요인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수요에 큰 변동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처럼 인과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시점고유효과를 민충기(2015)에서는 인과관계검정의 관점 측정오차로 보고, 설명변수의 관측치에 포함된 측정오차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일으키므로 최소자승추정량(OLS estimator)은 편의(bias)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Griliches and Hausman(1986)에 의하면 이러한 내생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측정오차에 해당하는 시점고유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거값(lagged values)을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민충기(2015)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거 1기 값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간단한 VAR(1)모형을 통해 시점고유효과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Y_t^* = \alpha_0 + \alpha_1 Y_{t-1}^* + \alpha_2 X_{t-1}^* + u_t^* \quad (1)$$

$$X_t^* = \beta_0 + \beta_1 Y_{t-1}^* + \beta_2 X_{t-1}^* + v_t^*$$

위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X_t^*, Y_t^*\}$ 을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없거나, 시점고유효과와 같은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자료인  $\{X_t, Y_t\}$ 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X_t = X_t^* + \delta_{X,t} \quad (2)$$

$$Y_t = Y_t^* + \delta_{Y,t}$$

여기서  $\{\delta_{X,t}, \delta_{Y,t}\}$ 는 시점고유효과와 같은 일시적 변화를 의미한다. 식(2)를 식(1)에 대입하여 관측 가능한 변수인  $\{X_t, Y_t\}$ 로 식(1)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t = \alpha_0 + \alpha_1 Y_{t-1} + \alpha_2 X_{t-1} + u_t \quad (3)$$

$$X_t = \beta_0 + \beta_1 Y_{t-1} + \beta_2 X_{t-1} + v_t$$

따라서 실제로는 식(3)을 추정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잔차항인  $u_t = (\delta_{Y,t} - \alpha_1 \delta_{Y,t-1} - \alpha_2 \delta_{X,t-1}) + u_t^*$ 와  $v_t = (\delta_{X,t} - \beta_1 \delta_{Y,t-1} - \beta_2 \delta_{X,t-1}) + v_t^*$ 는 (t-1)시점의 고유효과인  $(\delta_{X,t-1}, \delta_{Y,t-1})$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명변수인  $(X_{t-1}, Y_{t-1})$ 와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3)에 대한 OLS 추정은 편의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계량경제학에서 측정오류의 문제에 해당한다.

민충기(2015)에서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분석을 통해 식(3)에서의 내생성문제를 해결하여 일치추정(consistent estimation)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점고유효과와의 조정을 위한 도구변수로는 첫째, 과거 관측값(lagged values)을 사용하였다. 식(3)에서 추정편의를 일으키는 요인은 (t-1)시점의 고유효과이므로, 그 이전에 관측된 값들인  $\{X_{t-2}, Y_{t-2}, X_{t-3}, Y_{t-3}, \dots\}$ 는 도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2차 이상의 적률(higher moments)을 사용하였다. Dagenais and Dagenais(1997)는 측정오차가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2차 이상의 적률을 이용한 도구변수 일곱 개  $(Z_1, Z_2, \dots, Z_7)$ 를 제시한 바 있다. 민충기(2015)에서는 이 중 유효표본에서도 외생성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제약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



은<sup>42)</sup> ( $Z_2, Z_3$ )을 시점고유효과의 조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식(3)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Z_{2t}^X = (Y_t - \bar{Y})(X_{t-1} - \bar{X}), \quad Z_{2t}^Y = (Y_t - \bar{Y})(Y_{t-1} - \bar{Y}) \quad (4)$$

$$Z_{3t} = (Y_t - \bar{Y})^2$$

여기서  $\bar{Y} = \sum_{t=1}^T Y_t / T$  을 의미한다.

첫 번째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 간격이 멀어짐에 따라 해당 변수와의 관련성(relevance)이 떨어져 도구변수의 설명력이 약해지는 문제(weak instrument)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 번째 2차 이상의 적률( $Z_2, Z_3$ )은 해당 변수의 같은 시점 또는 (t-1) 관측치를 사용함으로써 그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충기(2015)에서는 이러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인과관계 분석방법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수요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에 적용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관광수요에 대한 OLS 추정 및 다양한 도구변수를 사용한 GMM 추정을 통해 측정오차에 해당하는 일시적 시점고유효과로 인하여 내생성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든 경우 유의한 내생성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GMM 추정에 사용한 도구변수들의 외생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도구변수는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수요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모형에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지 않은 OLS 추정은 편이 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42) 민충기(2015)에 따르면 첫 번째 도구변수인  $Z_1$ 은 측정오차가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다른 네 개의 도구변수인 ( $Z_4, Z_5, Z_6, Z_7$ )는 표본 수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에 외생성을 만족하여 유한표본 분석에는 적합지 않다.



## 제 3 절 분석결과

### 1.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 가.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세 가지 비율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이분산을 조정한 OLS 추정결과와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결과에서 모두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는 OLS 추정결과에 비해 GMM 추정결과의 추정치가 조금 더 큰 반면,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는 OLS 추정결과의 추정치가 조금 더 크고, 표준 오차는 두 가지 모두 시점 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결과의 경우가 더 작다. 또한 GMM 추정에 사용한 도구변수에 대한 외생성 검정 결과 모든 도구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변수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LS 추정 결과와 GMM 추정결과는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제주도 관광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에서도 두 모형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OLS 추정 결과도 같이 정리하였다.

GMM 추정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면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한국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을 3.27%p 증



가 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이를 3.19%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대 일본 환율과 우리나라 물가지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가지수의 경우 음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곧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비용 증가를 의미하므로 관광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율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변동으로 인해 관광비용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에 비해 제주도 외국인 관광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

설명변수	추정방법			
	OLS 추정 <sup>a</sup>		GMM 추정 <sup>b</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UNESCO <sub>t</sub>	3.18***	0.77	3.27***	0.51
INVEST <sub>t</sub>	5.45***	0.82	3.19***	0.71
%ΔEX_CHINA <sub>t-1</sub>	-0.39	0.75	-0.90	1.07
%ΔEX_JAPAN <sub>t-1</sub>	-0.15	0.11	-0.34**	0.16
%ΔEX_US <sub>t-1</sub>	0.53	0.76	1.38	1.13
%ΔGDP_CHINA <sub>t-1</sub>	1.16	0.76	1.29	0.85
%ΔGDP_JAPAN <sub>t-1</sub>	-1.35*	0.72	0.10	0.75
%ΔOIL <sub>t-1</sub>	-0.08**	0.03	-0.04	0.06
%ΔCPI <sub>t-1</sub>	-17.32***	2.75	-7.26***	2.41
R <sup>2</sup> (%)	70.38		58.40	
도구변수의 외생성검정 <sup>c</sup> (p 값)			0.4921	

주) 위의 모든 추정에는 절편과 월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2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sup>b</sup> GMM 추정을 위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의 래그값(2-4기전)과 higher moments를 사용하였다.

<sup>c</sup> 이 검정은 Hansen's J 검정으로도 알려진 것으로, 귀무가설은 [H<sub>0</sub> : 모든 도구변수는 외생적이다].



## 나. 제주도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

이어서 종속변수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총 관광객 수 대비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 비중을 사용한 경우에도 앞서와 유사하게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제주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유의한 양(positive)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시 OLS 추정 결과와 GMM 추정 결과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GMM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제주도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을 3.86%p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이를 3.40%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들 중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음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물가 변동에 따른 관광비용의 증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제주 총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

설명변수	추정방법			
	OLS 추정 <sup>a</sup>		GMM 추정 <sup>b</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UNESCO <sub>t</sub>	3.85***	0.92	3.86***	0.72
INVEST <sub>t</sub>	5.71***	0.99	3.40***	0.90
%ΔEX_CHINA <sub>t-1</sub>	-1.08	0.90	-1.46	1.41
%ΔEX_JAPAN <sub>t-1</sub>	-0.13	0.13	-0.34*	0.20
%ΔEX_US <sub>t-1</sub>	1.22	0.91	2.04	1.51
%ΔGDP_CHINA <sub>t-1</sub>	1.27	0.91	1.67	10.8
%ΔGDP_JAPAN <sub>t-1</sub>	-1.98**	0.86	-0.40	0.96
%ΔOIL <sub>t-1</sub>	-0.08*	0.04	-0.02	0.07
%ΔCPI <sub>t-1</sub>	-20.28***	3.30	-9.63***	2.93
R <sup>2</sup> (%)	66.95		55.64	
도구변수의 외생성검정 <sup>c</sup> (p 값)			0.4165	

주) 위의 모든 추정에는 절편과 월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2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sup>b</sup> GMM 추정을 위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의 래그값(2-4기전)과 higher moments를 사용하였다.

<sup>c</sup> 이 검정은 Hansen's J 검정으로도 알려진 것으로, 귀무가설은 [H<sub>0</sub> : 모든 도구변수는 외생적이다].

## 다. 제주도 관광수입 중 외화 수입 비중

세 번째는 관광객 수가 아닌 제주도 관광수입 중 외화 수입 비중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역시 앞서와 유사하게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제주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결과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제주도 관광수입 중 외화 수입 비중을 3.66%p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이를 5.68%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 번의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관광수입에 대한 분석에서는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가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관광 수입 측면에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는 총 관광수입에 비해 외화 관광수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들 중에서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음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앞서 두 번의 분석결과에 비해 계수 값이 약 2배 이상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지수 변동에 의한 영향은 외국인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보다 제주도 외국인 관광수입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제주도 외국인 관광 기여효과 추정결과: 제주 총 관광수입 중 외화 관광수입 비중**

설명변수	추정방법			
	OLS 추정 <sup>a</sup>		GMM 추정 <sup>b</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UNESCO <sub>t</sub>	3.22**	1.50	3.66***	1.36
INVEST <sub>t</sub>	8.12***	1.63	5.68***	1.76
%ΔEX_CHINA <sub>t-1</sub>	-0.43	1.61	-1.90	2.93
%ΔEX_JAPAN <sub>t-1</sub>	-0.37*	0.22	-0.89**	0.41
%ΔEX_US <sub>t-1</sub>	1.05	1.62	3.19	3.20
%ΔGDP_CHINA <sub>t-1</sub>	1.35	1.55	2.88	2.10
%ΔGDP_JAPAN <sub>t-1</sub>	-1.29	1.50	-1.84	1.64
%ΔOIL <sub>t-1</sub>	-0.07	0.07	-0.06	0.16
%ΔCPI <sub>t-1</sub>	-21.56***	5.57	-17.70***	6.70
R <sup>2</sup> (%)	54.72		47.74	
도구변수의 외생성검정 <sup>c</sup> (p 값)			0.6768	

주) 위의 모든 추정에는 절편과 월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2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sup>b</sup> GMM 추정을 위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의 래그값(2-4기전)과 higher moments를 사용하였다.

<sup>c</sup> 이 검정은 Hansen's J 검정으로도 알려진 것으로, 귀무가설은 [H<sub>0</sub> : 모든 도구변수는 외생적이다].





이상의 세 가지 종속 변수에 대한 분석에서 모두 이분산을 조정한 OLS 추정 결과와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가설 검정 측면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월별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이미 시점고유효과를 대부분 조정하고 있고, 둘째, 비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역시 상당부분의 시점고유효과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우 추정치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지 않은 OLS 추정은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비율변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로 인한 편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제주도 GR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제주도 지역경제는 2013년 제주도 GRDP 대비 관광수입이 51.7%에 달할 정도로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주도 GRDP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제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 조차도 제주 GRDP 증가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제주 GRDP 및 우리나라 전체 GDP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모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표 13> 제주도 GRDP 기여효과 추정결과: 제주 GRDP

설명변수	모형			
	OLS 추정-1 <sup>a</sup>		OLS 추정-2 <sup>a</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intercept	4.13***	1.28	4.15***	1.39
UNESCO <sub>t</sub>	-0.28	2.86	-0.26	2.97
INVEST <sub>t</sub>	0.46	3.38	0.53	3.83
%ΔJEJU_ARR_FOR <sub>t</sub>			-0.003	0.07
R <sup>2</sup> (%)	0.12		0.13	

주)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주 GRDP 및 한국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제주도 GRDP 비중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제주도 GRDP 기여효과 추정결과: 한국 GDP 중 제주 GRDP 비중

설명변수	모형			
	OLS 추정-1 <sup>a</sup>		OLS 추정-2 <sup>a</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intercept	1.07***	0.06	1.05***	0.06
UNESCO <sub>t</sub>	-0.14	0.14	-0.10	0.13
INVEST <sub>t</sub>	-0.01	0.16	0.04	0.17
%ΔJEJU_ARR_FOR <sub>t</sub>			-0.002	0.003
R <sup>2</sup> (%)	11.71		12.45	

주)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 3.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2014년 기준 23.4%에 달한다. 따라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관광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이분산을 조정한 OLS 추정 및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에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모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UNESCO와 INVEST를 제외한 나머지 통제변수는 모두  $t-1$ 기에서  $t-3$ 기까지의 과거 관측치를 사용하였는데, 다음 표에 정리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유의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가 한국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친 총괄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과거값 변수들의 추정치를 합한 누적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은 모든 계수의 합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해 검증하는 Wald test를 수행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15>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효과 추정결과

설명변수	추정방법			
	OLS 추정 <sup>a</sup>		GMM 추정 <sup>b</sup>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UNESCO <sub>t</sub>	1.26	1.21	0.44	1.32
INVEST <sub>t</sub>	-1.49	1.23	-1.05	1.36
%ΔARR <sub>t-1</sub>	0.12	0.09	0.01	0.12
%ΔARR <sub>t-2</sub>	-0.11	0.08	-0.14	0.12
%ΔARR <sub>t-3</sub>	-0.22***	0.08	-0.17*	0.10
%ΔEX_CHINA <sub>t-1</sub>	-0.45	1.37	-6.33***	2.27
%ΔEX_CHINA <sub>t-2</sub>	-0.98	1.44	3.33	2.72
%ΔEX_CHINA <sub>t-3</sub>	2.41*	1.25	0.47	1.79
%ΔEX_JAPAN <sub>t-1</sub>	0.23	0.17	1.04***	0.27
%ΔEX_JAPAN <sub>t-2</sub>	0.24	0.19	-0.55*	0.29
%ΔEX_JAPAN <sub>t-3</sub>	-0.05	0.18	0.43*	0.25
%ΔEX_US <sub>t-1</sub>	0.08	1.38	5.39**	2.33
%ΔEX_US <sub>t-2</sub>	0.72	1.41	-2.74	2.71
%ΔEX_US <sub>t-3</sub>	-2.42**	1.22	-0.90	1.83
%ΔGDP_CHINA <sub>t-1</sub>	-2.95	1.95	-3.71	2.99
%ΔGDP_CHINA <sub>t-2</sub>	-2.51	2.22	-2.07	2.97
%ΔGDP_CHINA <sub>t-3</sub>	-0.55	1.79	-0.09	2.22
%ΔGDP_JAPAN <sub>t-1</sub>	-0.93	2.23	6.05*	3.21
%ΔGDP_JAPAN <sub>t-2</sub>	1.32	2.70	-6.81**	3.34
%ΔGDP_JAPAN <sub>t-3</sub>	2.83	1.77	4.76**	2.34
%ΔOIL <sub>t-1</sub>	-0.06	0.06	0.01	0.08
%ΔOIL <sub>t-2</sub>	-0.01	0.07	-0.05	0.10
%ΔOIL <sub>t-3</sub>	-0.18***	0.06	-0.07	0.12
%ΔCPI <sub>t-1</sub>	-0.03	13.04	0.26	19.76
%ΔCPI <sub>t-2</sub>	7.14	19.83	-15.46	27.40
%ΔCPI <sub>t-3</sub>	-12.82	12.33	3.62	14.46
%ΔTRADE <sub>t-1</sub>	-0.06	0.11	-0.24	0.15
%ΔTRADE <sub>t-2</sub>	0.17	0.13	-0.04	0.16
%ΔTRADE <sub>t-3</sub>	0.17*	0.09	-0.09	0.11
R <sup>2</sup> (%)	74.12		57.88	

주) 위의 모든 추정에는 절편과 월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2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OLS 추정에서는 이분산성을 조정한(heterogeneity corrected)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sup>b</sup> GMM 추정을 위한 도구변수는 설명변수의 래그값(2-4기전)과 higher moments를 사용하였다.

다음 표는 앞서 1차 추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별 한국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누적효과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GMM 추정에서 유의한 변수는 일본 환율과, 중국 및 일본 GDP, 우리나라 물가지수 등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에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존의 관광수요 분석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출발국가의 소득수준, 관광비용을 결정하는 소비자물가, 환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미치는 누적효과에 관한 유의성 검정

설명변수	추정방법			
	OLS 추정		GMM 추정	
	누적효과 <sup>a</sup>	p값 <sup>a</sup>	누적효과 <sup>a</sup>	p값 <sup>a</sup>
UNESCO <sub>t</sub>	1.26	0.2974	0.44	0.7396
INVEST <sub>t</sub>	-1.49	0.2256	-1.05	0.4417
%ΔARR <sub>(t-1, t-2, t-3)</sub>	-0.21	0.1791	-0.30	0.2516
%ΔEX_CHINA <sub>(t-1, t-2, t-3)</sub>	0.98	0.5560	-2.54	0.3355
%ΔEX_JAPAN <sub>(t-1, t-2, t-3)</sub>	0.42	0.1269	0.92**	0.0201
%ΔEX_US <sub>(t-1, t-2, t-3)</sub>	-1.62	0.3612	1.75	0.5330
%ΔGDP_CHINA <sub>(t-1, t-2, t-3)</sub>	-6.00***	0.0059	-5.87**	0.0288
%ΔGDP_JAPAN <sub>(t-1, t-2, t-3)</sub>	3.22**	0.0314	3.99*	0.0862
%ΔOIL <sub>(t-1, t-2, t-3)</sub>	-0.25**	0.0524	-0.11	0.5618
%ΔCPI <sub>(t-1, t-2, t-3)</sub>	-5.71	0.2608	-11.58*	0.0876
%ΔTRADE <sub>(t-1, t-2, t-3)</sub>	0.29	0.3158	-0.38	0.2700
R <sup>2</sup> (%)	74.12		57.88	

주) 위의 모든 추정에는 절편과 월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그 추정결과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정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192개이다. \*\*\*,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한다.

<sup>a</sup> 각 요인의 누적효과는 해당변수들의 추정치들(current and lagged estimates)의 합이다.

<sup>b</sup> 누적 효과의 p값은 귀무가설 [H<sub>0</sub> : 모든 계수의 합은 0이다]에 대한 Wald test 결과이다.

마지막 분석 결과에서 재밌는 점은 중국 실질 GDP의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한 영향이 음(negative)의 값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관광수요가 늘어나므로 해당계수는 양(positive)의 값을 갖게 되는데 반대 부호가 관측된 것이다. 이는 바로 중국 춘절의 특수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구정(음력 1월 1일)과 같은 춘절은 중국에서는 보통 며칠씩 연휴가 지속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름이나 한 달까지 쉬는 곳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GDP 증가율은 항상 전기



대비 매우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지만 연휴 기간이라 관광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소득의 대리변수로 분기별 GDP를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관광수요 추정 모형에서 출발국가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GDP 자료를 사용하는데 따른 한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주가지수 등 실물경기에 보다 밀접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sup>43)</sup>.

---

43) 본 연구에서도 상하이 지수, 니케이 지수 등 중국과 일본의 주가지수를 GDP 변수 대신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제주도 유네스코 등재 및 투자 이민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은 동일한 결론을 얻었으므로 이는 생략하였다.



## 제 V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의 도입과 같은 제주도 주요 정책이 실제 관광수요의 확대로 이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제주도 관광객 증가는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커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민감한 관광 수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석하고자 하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의 조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충기(2015)의 연구에 근거하여 과거값과 이차 이상의 적률(higher moments)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GMM 추정으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OLS 추정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은 크게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영향 분석과 제주도 GRDP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영향 분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 관심사인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는 제주도 관광수요에 대한 종속변수로 한국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 제주 총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 제주 총 관광수입 중 외화 관광수입 비중의 비율변수를 각각 사용하여 제주도 관광수요와 별개로 한국전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GRDP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관광객 증가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제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국인관광수요 분



석에서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은 제주도 외국인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도의 대리변수로 본 연구에 사용한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국 외국인 관광객 중 제주도 관광객 비중, 제주 총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이 거의 유사하였으나 제주 총 관광수입 중 외화 관광수입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종속변수로 비율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 수요에 비해 제주도 외국인 관광수요에 보다 큰 영향이 있으며, 제주도 전체 관광수요에 비해서도 제주도 외국인 관광 수요에 더 큰 영향이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지 않은 OLS 추정 결과에 비해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 결과에서는 변수에 따라 계수 추정치가 다소 차이가 나거나 표준오차가 줄어드는 등 다소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관광수요 추정에 있어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의 조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하지 않은 OLS 추정 결과와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결과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계절적 영향 등을 조정하기 위해 포함한 월별 더미변수가 이미 시점고유효과를 상당부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광수요의 시점고유효과는 대부분 일시적, 단기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월 더미변수만으로도 상





당부분 시점고유효과를 통제한 것이다. 또한 비율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특정 시점의 고유한 영향이 다소 상쇄된 영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수들에서는 시점고유효과를 조정한 GMM 추정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가 커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 조정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도 외국인 관광 외에 제주 지역경제 및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에 대한 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추가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이 관광수요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나, 제주 지역경제 및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수요의 변동은 그 외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에서 월별자료를 사용할 경우 중국 GDP의 영향은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 춘절 연휴 GDP가 크게 감소하고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광수요 추정 모형에서 출발국가 소득 수준의 대리변수로 GDP 자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주가지수 와 같이 실물 경기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리 변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차 통계자료만을 사용하여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와 투자 이민제도의 도입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제주도 외국인 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인지여부, 등재 관광지에 대한 방문의사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동관(2011). 간접투자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법무부.
- 김범훈(2010).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10 년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167-182.
- 고학부(2013). “외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투자 선택요인 분석 : 일본 및 중화권 잠재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정수(2003). 국제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 민충기(2015). “인과관계검정에서의 편의와 해결방법: 관광수요 추정에서의 응용”, 응용경제, 제17권 제4호 2015년 12월.
- 윤병국·최승일(2011). “새만금 관광개발 영향요인과 지역주민 인식과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3(6), 23-38.
- 이규환 (2005).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16(11).
- 이종아(2013).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이해와 영향”, KB지식비타민 14-87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이형주, 김인신 (2014).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한 관광개발 영향이 지역 주민의 지역정체성 상실 및 개발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5), 411-426.
- 정승훈(2011). “중국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한 제주관광의 과제”, 제주발전포럼 제39호 (2011년 가을) pp.58-69,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5a).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현황”, 2015.9.30.
- \_\_\_\_\_(2015b).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 2015.9.30.
- \_\_\_\_\_(20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보고서(2014~2018), 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
- \_\_\_\_\_(20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주발전연구원.
- 조강철 외(2014). “UNESCO 세계유산 선정의 베스트셀러 효과 추정 및 제주 관광에의 시사점”, 제주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 주민욱, 최낙진(2015). “제주지역 신문의 ‘중국(인)’ 담론 연구”. 동서언론, 17, 123-152



- Akal, M. (2004). Forecasting Turkey's tourism revenues by ARMAX model. *Tourism Management*, 25, 565-580.
- Au, N., & Law, R. (2002). Categorical classification of tourism di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819-833.
- \_\_\_\_\_(2000). The application of rough sets to sightseeing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 70-77.
- Box, G. E. P., & Jenkins, G. M. (1970).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San Francisco: Holden Day.
- Chan, F., Lim, C., & McAleer, M. (2005). Modelling multivariate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and volatility. *Tourism Management*, 26, 459 - 471.
- Cho, V. (2001). Tourism forecast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leading economic indicator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25, 399 - 420.
- Coshall, J. T. (2005). A selection strategy for modelling UK tourism flows by air to European destinations. *Tourism Economics*, 11, 141-158.
- Crouch, G. I., Shaw, R. N., Johnson, P., & Thomas, B. (1992).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a meta-analytical integration of research findings*. Mansell Publishing.
- Dagenais, M. G. & D. L. Dagenais (1997). "Higher moment estimators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errors in the variables," *Journal of Econometrics*, 76, 193-221.
- Deaton, A. S., & Muellbauer, J. (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70, 312 - 326.
- De Mello, M. M., & Fortuna, N. (2005). Testing alternative dynamic systems for modelling tourism demand. *Tourism Economics*, 11, 517 - 537.
- De Mello, M. M., & Nell, K. S. (2005). The forecasting ability of a cointegrated VAR system of the UK tourism demand for France Spain and Portugal. *Empirical Economics*, 30, 277 - 308.
- Durbarry, R., & Sinclair, M. T. (2003). Market shares analysis: The case of French tourism demand.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 927 - 941.
- Garín-Munõz, T. (2006). Inbound international tourism to Canary Islands: a dynamic panel data model. *Tourism management*, 27(2), 281-291.
- Garin-Munõz, T., & Amaral, T. P. (2000). An econometric model for international



- tourism flows to Spain. *Applied Economics Letters*, 7(8), 525-529.
- Goh, C., & Law, R. (2002). Modeling and forecasting tourism demand for arrivals with stochastic nonstationary seasonality and intervention. *Tourism Management*, 23, 499-510.
- Coshall, J. T. (2005). A selection strategy for modelling UK tourism flows by air to European destinations. *Tourism Economics*, 11, 141 - 158.
- Griliches, Z. & J.A. Hausman (1986), "Errors in variables in pane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31, 93-118.
- Gursoy, D., C. Jurowski & M. Uysal (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 79-105.
- Gustavsson, P., & Nordström, J. (2001). The impact of seasonal unit roots and vector ARMA modelling on forecasting monthly tourism flows. *Tourism Economics*, 7, 117 - 133.
- Huang, C. H., Tsauro, J. R., & Yang, C. H. (2012). Does world heritage list really induce more tourists? Evidence from Macau. *Tourism Management*, 33, 1450-1457.
- Kulendran, N., & Wilson, K. (2000). Modelling business travel. *Tourism Economics*, 6, 47 - 59.
- Kulendran, N., & Witt, S. F. (2001). Cointegration versus least squares regress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 291 - 311.
- \_\_\_\_\_(2003a). Forecasting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business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 265 - 271.
- \_\_\_\_\_(2003b). Leading indicator tourism forecasts. *Tourism Management*, 24, 503 - 510.
- Ledesma-Rodríguez, F. J., Navarro-Ibanez, M., & Pérez-Rodríguez, J. V. (2001). Panel data and tourism: a case study of Tenerife. *Tourism Economics*, 7(1), 75-88.
- Law, R., & Au, N. (2000). Relationship modeling in tourism shopping: a decision rules induction approach. *Tourism Management*, 21, 241-249.
- Li, G., Song, H., & Witt, S. F. (2006). Time varying parameter and fixed parameter linear AIDS: An application to tourism demand forecas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2, 57-71.



- \_\_\_\_\_(2005). Recent developments in econometric modeling and forecast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44, 82-99.
- \_\_\_\_\_(2004). Modeling Tourism Demand: A Dynamic Linear AIDS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 141-150.
- Li, G., Wong, K. F., Song, H., & Witt, S. F. (2006). Tourism demand forecasting: A time varying parameter error correction mod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45: 175-185.
- Lim, C. (1999). A meta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 273 - 284.
- Lim, C., & McAleer, M. (2001a). Cointegration analysis of quarterly tourism demand by Hong Kong and Singapore for Australia. *Applied Economics*, 33, 1599 - 1619.
- \_\_\_\_\_(2001b). Monthly seasonal variations: Asian tourism to Austral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 68 - 82.
- Mangion, M. L., Durbarry, R., & Sinclair, M. T. (2005). Tourism competitiveness: Price and quality Tourism competitiveness: Price and quality. *Tourism Economics*, 11, 45 - 68.
- Morley, C. L. (1998), "A dynamic international demand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70-84.
- Min, C., T. Roh, & S. Bak, "Growth effects of leisure tourism and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Forthcoming in *Applied Economics*, DOI: 10.1080/00036846.2015.1073838, 2015.
- Naudé, W. A., & Saayman, A. (2005). Determinants of tourist arrivals in Africa: a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Tourism Economics*, 11(3), 365-391.
- Roget, F. M., & Rodríguez González, X. A. (2006). Rural tourism demand in Galicia, Spain. *Tourism economics*, 12(1), 21-31.
- Roh, T. S., Bak, S. M., & Min, C. K, (2015). UNESCO World Heritages and Tourism. Working paper.
- Rosselló, J. (2001). Forecasting turning points in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in the Balearic Islands. *Tourism Economics*, 7, 365-380.
- Sakai, M., Brown, J., & Mak, J. (2000). Population aging and Japanese international trave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 212 - 220.



- Shan, J., & Wilson, K. (2001). Causality between trade and tourism: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8, 279 - 283.
- Smeral, E. (2004). Long-term forecasts for international tourism. *Tourism Economics*, 10, 145-166.
- Smeral, E., & Wüger, M. (2005). Does complexity matter? Methods for improving forecasting accuracy in tourism: The case of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4, 100 - 110.
- Song, H., & Li, G. (2008). Tourism demand modelling and forecasting – A review of recent research. *Tourism Management*, 29(2), 203-220.
- Song, H., & Turner, L. (2006). Tourism demand forecasting. In L. Dwyer, & P. Forsyth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tourism*. Cheltenham: Edward Elgar.
- Song, H., & Witt, S. F. (2000). *Tourism demand modelling and forecasting: Modern econometric approaches*. Cambridge: Pergamon.
- Song, H., Romilly, P., & Liu, X. (2000). An empirical study of outbound tourism demand in the UK. *Applied Economics*, 32, 611 - 624.
- Song, H., Wong, K. K., & Chon, K. K. (2003). Modelling and forecasting the demand for Hong Kong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2(4), 435-451.
- Su, Y. W., & Lin, H. L. (2014).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worldwide: The role of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40, 46-58.
- Turner, L. W., Kulendran, N., & Pergat, V. (1995). Forecasting New Zealand tourism demand with disaggregated data. *Tourism Economics*, 1(1), 51-69.
- Turner, L. W., & Witt, S. F. (2001a). Factors influencing demand for international tourism: Tourism demand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Revisited. *Tourism Economics*, 7, 21-38.
- \_\_\_\_\_(2001b). Forecasting tourism using univariate and multivariate structural time series models. *Tourism Economics*, 7, 135-147.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dopted on 16 November 1972.
- Witt, S. F., Song, H., & Louvieris, P. (2003). Statistical testing in forecasting model



- sele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2(2), 151-158.
- Witt, S. F., & Martin, C. A. (1987). Econometric models for forecasting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25(3), 23-30.
- Witt, S. F., & Song, H. (2000). Forecasting future tourism flows. *Tourism and Hospitality in the 21st Century*, Butterworth-Heinemann, Oxford, 106-118.
- Witt, S. F., Song, H., & Wanhill, S. P. (2004). Forecasting tourism-generated employment: The case of Denmark. *Tourism Economics*, 10, 167-176.
- Wong, K. K. F., Song, H., & Chon, K. S. (2006). Bayesian models for tourism demand forecasting. *Tourism Management*, 27, 773 - 780.
- Yang, C. H., & Lin, H. Y. (2014).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heritage sites and tourism. *Tourism Economics*, 20(1), 73-86.
- Yang, C. H., Lin, H. L., & Han, C. C. (2010).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China: The role of World Heritage Sites. *Tourism management*, 31(6), 827-83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wh/wh\\_intro/](http://heritage.unesco.or.kr/wh/wh_intro/))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통계 홈페이지

(<http://www.ijto.or.kr/korean/Bd/list.php?btable=pds&lcate=3>)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kor/invest/main.kto?func\\_name=imin](http://korean.visitkorea.or.kr/kor/invest/main.kto?func_name=imin))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kto>)



# Abstract

## **Effect Analysis of Tourism Demand on Jeju-island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and induction of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Hwang, Jungbin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thesis empirically analyzes how practical tourism demand is impacted by Jeju-island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and induction of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The analysis is broadly classified in three and establishes models; the impact of foreign tourism in Jeju-island, the impact of GRDP in Jeju-island the impact of foreign tourism demand in Korea.

Considering sensitive tourism demand by various external factors, time-specific effects was adjusted, irrelevant to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y analyzing the data from Jeju-island tourists between January, 1999 and December, 2015, first of all, Jeju-island desig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and induction of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brought a positive impact of foreign tourism in Jeju-island, however, the impact of GRDP in Jeju-island, and foreign tourism demand in Korea were disregarded.





Secondly, comparing the simple OLS estimation result to the GMM estimation result which was adjusted time-specific effects, irrelevant to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they had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practical analysis of tourism dem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djusted time-specific effects, irrelevant to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